행정학석사학위논문

韓國에서의 自由民主主義 受容·展開에 관한 一考察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一般行政 專攻

金 京 植

행정학석사학위논문

韓國에서의 自由民主主義 受容·展開에 관한 一考察

1991年 12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一般行政 專攻

金 京 植

韓國에서의 自由民主主義 受容·展開에 관한 一考察

An Investigation Concerning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Liberal Democracy in Republic of Korea

指導敎授：**鄭 成 澤**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1 年 12 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一般行政 專攻

金 京 植

論 文 認 准 書

金京植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1 年　12 月　日

審 査 委 員 李 鍾 受 ㊞

審 査 委 員 曺 振 洙 ㊞

審 査 委 員 鄭 成 澤 ㊞

目　　次

Ⅰ. 序　　論 …… 1

1. 問題의 提起 …… 1

2. 研究範圍 및 方法 …… 3

Ⅱ. 自由民主主義의 理念定向 …… 4

1. 自由民主主義의 本質 및 基本理念 …… 4

가. 自由民主主義의 本質과 價値 …… 4

나. 自由民主主義의 基本理念 …… 6

(1) 寬容과 多數決의 原則 …… 7

(2) 自由와 平等 …… 10

(3) 主權存民 原則 …… 13

(4) 市民 參與의 原則 …… 13

(5) 法의 支配의 原則 …… 15

(6) 合理性 …… 16

2. 自由民主主義의 發展過程 및 限界 …… 17

가. 自由民主主義의 發展過程과 實際 …… 17

나. 自由民主主義 理論의 限界 및 可能性 …… 21

Ⅲ. 韓國에서의 自由民主主義 受容·展開過程 ····· 26
1. 解放後 韓國의 社會 政治的 遺産과 自由民主主義의 受容 ····· 27
가. 解放後 韓國의 社會 政治的 遺産 ····· 27
나. 自由民主主義의 受容과 그 意味 ····· 29
(1) 自由民主主義의 受容과 背景 ····· 30
(2) 自由民主主義와 反共 이데올로기 ····· 31
2. 5.16 軍事政府의 登場과 以後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挑戰 ····· 34
3. 第6共和國 民主化 推進과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守護 ····· 39
가. 6.29 宣言의 意味와 民主化의 槪念 ····· 39
나. 6.29 宣言 以後의 自由化와 民主化의 具體的 內容 ····· 43
Ⅳ. 韓國에서의 自由民主主義 實現의 問題點과 方向 ····· 47
1. 韓國 自由民主主義 實現의 問題點 ····· 48
가. 南北分斷의 환경적 要因 ····· 48
나. 權力構造的 要因 ····· 49
다. 政治文化的 要因 ····· 50
라. 經濟的 要因 ····· 51
마. 社會構造的·社會心理的 要因 ····· 51

2. 韓國 自由民主主義 實現의 方向 ····· 53
가. 理論的 側面 ····· 54
(1) 民族主義的 要素 ····· 54
(2) 民主主義的 要素 ····· 56
(3) 民福主義的 要素 ····· 57
나. 政治的 側面 ····· 59
(1) 政治의 制度化 ····· 59
(2) 權力의 正當性 ····· 60
(3) 政治敎育의 實現性 ····· 62

V. 結 論

◈ 參 考 文 獻

◈ ABSTRACT

Ⅰ. 序　　論

1. 問題의 提起

自由主義와 共產主義 양대진영으로 양분되었던 世界秩序구도는 情報·通信·交通 등 科學技術의 발달로 圈域間·地域間·國家間의 교류 접촉이 활발히 전개되므로써 圖式的 구도가 와해되고 있다.

이러한 現像은 오늘날 우리에게 可視的인 변화양상으로 이데올로기 대립의 종식, 미국과 소련의 지배체제의 終焉, 兩極體制에서 多極體制와 集團安保 體制로의 변화, 共產主義權의 해체와 몰락, 市場經濟制度의 확산, 自由市場經濟國家들의 상호의존 강화 추세,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多樣한 新局面을 試現하고 있다.

이렇게 新國際秩序구도가 可視化되고 全世界가 革命的 변화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세계유일의 분단지역이라할 한반도는 여전히 競爭과 葛藤의 對峙를 계속하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 社會는 國際的으로 拋棄된 社會主義 革命을 實現하겠다고 주장하는 體制否定의 變革勢力이 생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自由民主主義 體制에 대해 보다 깊은 省察과 反省을 통하여 확고한 民主主義를 정착할 必要가 있다하겠다.

서구에서의 自由民主主義의 전개과정을 되돌아보면 自由民主主義란 自由主義의 바탕위에서 民主主義가 첨가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서구에서 民主的 參政權은 自由主義 國家가 확고히 成立된 연후에 성취되었

으며, 따라서 民主主義는 自由主義的 市場經濟 體制와 이에 상응하는 부르조아 國家가 정립된 바탕위에서 自信을 적응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적응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서구에서의 自由民主主義 形成過程은 일견 自由主義 國家의 民主主義化 過程으로 認識되나 기실 그 과정 속에서 民主主義가 自由主義化되어 온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선 서구의 自由民主主義를 올바르게 理解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서구의 自由民主主義가 戰後 많은 發展途上國家들에 受容되었다. 發展途上國家들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마 近代化論이 가정하듯 서구형의 民主主義와 市場經濟가 함께 정착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실제로 充足되기 어려웠다. 西歐 社會가 걸어왔던 諸 過程, 즉 資本主義的 市場經濟의 形成과 自由主義 國家의 등장 選擧權의 擴大에 따른 民主參政의 成就 福祉國家에로의 轉移 등 어느 過程도 차분히 밟아보지 못한 이들 나라의 경우 이들이 指向했던 近代化가 용이할 리 없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서구가 경험한 장기간에 걸친 資本主義적 成長과 資本主義의 思想的 基盤 그리고 民主參政의 歷史 중 어느것 하나 갖추어지지 못한 채 解放을 맞았고, 수입된 制度로서 '自由民主主義'라는 政治理念이 國家理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새로운 政治理念이 大韓民國의 國家理念으로 채택되는 데에는 民族分斷과 그로인한 南北의 單獨政府樹立이 영향을 미쳤다. 解放後의 국가건설이 이데올로기의 國際政治化와 맞물려 이루어짐으로써 南에는 自由民主主義 體制가, 北에는 共產主義體制가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 둘이 출발부터 敵對的 관계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상황은 政治理念과 政治現實을 乖離시키는 結果를 가져왔다. 즉 自

由民主主義의 理念이 權威主義의 政治現實에 의해 제압된 것이다. 불과 8개월여의 民主黨 政權 期間을 예외로 건국이후의 政治史는 自由民主主義의 形式化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등을 염두해볼 때, 한국에서 自由民主主義가 걸어온 발자취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살펴보는 것은 凡世界的으로 社會主義 體制가 崩壞되고 自由民主主義의 勝利를 구가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自由民主主義 體制 확립을 위해서도 意味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2. 研究範圍 및 方法

自由民主主義는 戰後 自由民主陣營과 共產主義 陣營으로 양분하는데 그 몫을 다 하였다. 즉 볼세비키 革命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自由民主主義 對 共產主義의 대결은 개별 國家社會內部의 政治的 問題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17년 이후 이들 政治的 見解들은 단순한 政治理念의 차원을 넘어 國家理念으로 化하게 되었고, 제2차대전 기간중에는 완전히 自由民主主義理念 블록과 共產主義理念 블록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論文에서는 規範的 接近方法과 歷史的 接近方法을 병행하여 오랜 歷史와 傳統을 가진 西歐自由民主主義의 本質과 基本理論 그리고 發展過程을 살펴보고, 아울러 理論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 등을 分析하고자 한다. 그런다음 經驗主義的 方法과 行態主義的 接近方法을 통하여 이러한 自由民主主義가 해방후 한국에 導入되어 南北分斷이라는 政治的 制約與件下에서의 展開를 살펴보고 理念과 現實間의 乖離로 나타나는 自由民主主義가 우리의 體制守護를 위해서 어떠한 方向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에 대해서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自由民主主義의 理念定向

自由民主主義 理論은 個人의 權利와 統治의 制限, 財産權을 核心으로 17세기의 古典的 自由主義 理論과 政府의 選擇이나 다른 慾求의 充足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平等한 權利를 부여하는 民主主義的 原理의 불안한 混合物로 등장했다. 즉 自由主義는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이고 資本主義의 防禦論理였던 반면, 民主主義는 主權在民의 人民중심의 思想이었기 때문에 自由主義와 民主主義는 葛藤의 관계속에서 지내왔다.

그러다가 프랑스 革命 以後 人民의 政治的 權利가 확대되고 自由·普通·平等選擧 등이 實施되면서 自由主義와 民主主義는 서로 結合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自由民主主義는 일견 相反되는 價値인듯한 자유와 平等을 조화롭게 결부시켜야 할 課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

1. 自由民主主義의 本質 및 基本理念

가. 自由民主主義의 本質과 價値

自由民主主義는 영어로 'liberal democracy'인데 liberal과 democracy는 엄밀히 말해 구분 된다. 'liberal'이란 말은 흔히 自由民主主義的이라고 번역되지만 원래는 個人主義라는 뜻에 더 가까웠다. 이것은 서구의 歷史와 文化的 特徵을 背景으로 해서 후일 'liberal democracy'로 展開된 것인데 古典的 自由主義, 즉

liberalism 傳統은 영국에서 먼저 발달하였다.

영국의 自由主義는 애초에 宗敎的 自由와 寬容을 主軸으로 繼承되었고 政治的으로는 國家權力에 대한 制限運動과 參政權을 위한 鬪爭으로 이어졌다. 또한 西歐의 自由主義는 時期的으로 르네상스와 宗敎改革을 거친 후 近代에 해당하는 17~18세기의 産物이며 무엇보다 그 신조는 個人의 發見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모든 社會關係를 個人을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이기도 하였다.[1)]

그래서 自由主義者들은 人間을 理性的 存在로 파악하는데 머물지 않고 나아가서 人間은 賢明한 知性과 보편적인 知識에 의해서 權力의 濫用을 막고 無知와 폭력 대신 理性的 判斷과 合理的인 行動을 選擇할 수 있는 主知主義的, 民主主義的 存在로 理解하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權力의 正當性, 法과 正義, 自由, 服從, 義務 등을 政治思想과 哲學의 중심적인 問題로 다루었다. 한편 自由主義者들은 民主主義者들이 個人의 自由와 삶의 多樣性을 위협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즉 民主主義者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수에 의한 힘, 國民的 참여 公共意見 등의 表現은 그들이 이러한 군중과 공공대다수의 압력등을 이용해 國民의 의견을 일정한 方向으로 획일적으로 몰고 가려는 수단임을 自由主義者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自由主義者들과는 다르게 民主主義를 보고 있는 自由民主主義者들이 있다.

이러한 自由民主主義者들은 個人의 自由를 저해하거나 全體主義로 흐를 可能性이 있다고 보는 극단적인 자세보다 이러한 民主主義가 自由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 民主主義의 原理를 改善하고 補完하여 全體主義的 統治의 危險에서

---

1) Anthony Arblaster,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Liberalism 6(Oxford : Basil Blackwell, 1984), pp.75~76 ; 安淸市, "자유민주주의", 「민족지성」 87년 6월호.

벗어나 오히려 肯定的인 방향으로 民主主義를 이끌어 가려고 摸索한다. 그러므로 自由民主主義者들은 民主主義 그 자체를 結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個人의 個性과 삶의 多樣性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본다. 이러한 면에서 自由民主主義는 人民에 의한 政府 혹은 人民主權을 옹호한다.[2)]

그러나 실적적인 내용이 어떠하든간에 人民에 의한 政府 혹은 人民主權이라는 말은 고도로 阿附的이며 大衆迎合的인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規範的 槪念은 人間의 내재적인 결함이나 취약점을 고의로 간과하고 외면한 政治理念이요, 국민대중의 政治能力을 과대평가하고 過大期待하는 제도라고 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自由民主主義의 政治制度가 人間들을 실제로 그 값어치 이상으로 對立하는 것은 統合技術이나 能率性을 어느정도 희생해서라도 人間의 존엄성을 高揚하고 신성한 잠재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이다. 국민대중이 보다 많은 自由選擇의 意味를 가지고 생각하고 行動함으로써 그들의 政治參與 能力과 道德的 人格을 자유롭게 발휘케 하며 성장육성케 하는 장치인만큼 그 자체로서 價値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바커(E. Barker)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獨裁政治는 그의 存在를 그 業績에 의해서 正當하여야만 하지만 民主政治는 그의 存續 그 자체가 중요한 業績이 된다."[3)]

나. 自由民主主義의 基本理念

國家가 實現하여야 할 目標는 個人에 있어서 自我實現이라는 價値라고 民主

2) Ibid, pp.77~79.

3) Ernest Barker, Reflections on Goverment(London : Oxford Univ. press, 1942), p.412.

主義者들은 主張하고 있다. 바커(E. Barker)는 "人間能力의 發展은 國家에 의하여 實現되는 窮極的인 目標이고 최종적인 政治的 價値이다."라고 밝혔다.[4]

이러한 主張을 받아들인다면 自由主義에서는 個人의 自我發展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自我를 實現할 수 있도록 國家 뿐만 아니라 모든 構成員이 努力을 하여야 한다.

近代社會는 個人의 尊嚴 및 價値와 自我發展이라는 理想을 강조하는 價値 및 信念體制를 發展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努力을 기울였다는 항목에서는 歐美 政治學者들이 내세우고 있는 自由民主主義의 몇가지 중요한 基本思想 내지 理念만을 간추려 論理를 펴고자 한다.

(1) 寬容과 多數決의 原則

民主主義는 多數決의 原則을 명백하게 認定하고 있다. 즉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 여러계층과 개인의 相異한 요구와 意思가 主權者인 國民의 意思로 形成되는 過程에서 가장 基礎的 假定은 다수의 意思가 支配한다는 原則이다. 多數決의 原則을 假定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5]

첫째, 多數에 의한 統治는 항상 공정하지 못할지라도 소수에 의한 統治보다는 더 공정할 것이다.

둘째, 진정한 民主主義下에서는 多數가 스스로 자제함으로써 多數에 의한 횡포가 없으며 少數의 의견도 尊重하며 少數와의 協商에서 양보도 하게 된다.

셋째, 民主主義에 있어서 대부분의 결정이나 규정은 多數와 少數간의 타협에

4) Ernest Barker, principles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Oxford Univ. press, 1951), p. 136.
5) 전득주, 「과격급진주의와 자유민주의」 (서울 : 평민사, 1985), pp.277~278.

의한 조정의 표현이라 하겠다. 따라서 意見을 달리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은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寬容(tolerance)과 寬大로써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 즉 多數決의 原理와 少數 보호를 위한 반대자의 이유는 동전의 表裏처럼 일체가 되어야 진정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民主主義制度의 운영에 성공한 미국과 서구선진국제도의 多數決의 原則에다 寬容과 寬大의 原則을 結合시킴으로써 다수파의 의사가 단지 수학적인 다수의 形式的인 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의 妥協과 讓步의 과정을 통해 그들의 의사까지 흡수 함으로써 사회전체의 正義와 福利를 實現할 수 있는 내용인 一般性과 公共性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寬容의 精神은 宗教的인 문제에서 먼저 나타났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西歐에 宗教的인 不寬容이 먼저 있었으나 나중에 宗教的인 寬容[6]으로 發展하였다.

15~16세기 西歐에서의 카토릭은 宗教改革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宗教的인 不寬容을 보였다. 같은 나라에서 종교적인 異端者나 異教徒에게 표시하는 종교적인 불관용은 迫害로 나타났다. 허브마이어(B. Hubmier)가 "異端의 도전은 信仰의 자극제이고 강화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최초로 관용론을 피력하였으나 결국 1528년 火刑을 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宗教的 迫害가 계속되는 와중에 寬容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에라스무스(D. Erasmus)와 그의 영향을 받은 교회 진보파들이 기본 신학적 신조를

6) 종교적인 관용에 대해서는 Elisabeth Labrousse, Religious Toleration in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 ed. by philip P. Wiene et als(New York : Charlse Scriners, 1978), Vol, 4, pp.112~12.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강조했는데 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相異的 解釋이나 見解에 대해서는 寬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이러한 바탕위에서 宗教改革이 일어났고, 한편 宗教改革과 같은 歷史的 배경속에서 寬容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宗教改革을 통해 寬容의 原則이 세워졌고, 17세기에 들어와서 寬容이 政治的 原則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7세기에 존 밀톤(John Milton)은 "言論 및 出版을 통제하고 檢閱하는 것은 국민을 어린에 취급하는 것이다."[7]라고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도 "어떠한 관습도 본질적으로 존경할만한 가치가 없다. 진리가 담겨있지 않은 慣習은 誤謬의 연속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8]라고 주장하였다.

19세기에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그의 自由論(on liberty, 1859년)에서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의 意見에 강제권을 行事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설사 단 한사람만을 제외한 전 인류가 꼭 같은 意見이고 단 한 사람만의 반대 意見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는 그 단 한사람을 무턱대고 침묵시킬 수 있는 정당한 權利가 없는 것은 그 한 사람이 權力을 장악하였을 때 전 인류를 무턱대고 침묵케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9] 그래서 Mill은 다른 사람의 自由를 침해하지 않는 한, 自信이 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自信의 방식대로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만 文明 社會는 進步할 수 있다고 믿었다.

歷史的으로 보아 政治的 寬容은 宗教的인 寬容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생겨나

---

7) Anthony Arblaster, op.cit, p.155.
8) Ibid, p.156.
9) J. S. Mill on Liberty, Chapter 2.

서 오늘날 정착 되었다. 그런데 Mill은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였을 때 전 人類를 무턱대고 침묵케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앞에서 主張하였다. 이는 多數가 少數에게 寬容을 베풀어야 하며 少數는 자신의 意見이 언젠가는 진리로 판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다수에 대하여 관용을 보여야 한다는 意味이다.

따라서 관용은 多數가 少數를 동정하여 베푸는 관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관용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그리고 소수와 다수를 불문하고 인간이라면 서로가 보여야 하는 德性이라고 할 수 있으며 自由民主主義社會가 存立하는데 必須不可缺한 전제이다.[10]

(2) 自由와 平等

상호 배반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는 自由와 平等 問題는 自由民主主義의 가장 核心的인 思想이다. 問題는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인데 以下에서 몇몇 학자들의 주장을 근간으로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토끄밀(Alexis de tocqueville)에 의하면 평등의 확장은 自由의 축소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리고 自由는 分化와 分裂을 가져올 素志가 있으나 平等은 水平化와 集中化를 가져올 수도 있다. 自由는 自由主義로 平等은 民主主義로 具體化되고 따라서 양자는 상호배반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이라고 한다."[11]

한편 액톤 경(Lord Acton, 1834~1902)도 자유와 平等은 서로 對立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民主主義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條件을 同質化시킴으

---

10) 이종은, 「민주주의와 혁명－자유민주주의와 계급민주주의」 (서울 : 영학출판사, 1989), p.146.

11) Amthony Arblastor, pp.170~273.

로써 自由에 있어서 핵심인 개체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12] 한편 새바인(George H Sabine)도 "自由가 증대되면 될 수록 自由는 줄어든다."라고 주장하였다.[13]

즉 평등이 무차별적인 均等化로 이르면 과도한 中央執權化가 촉진되고, 지방적인 結社나 제도와 自由의 堡壘는 侵害될 수 있다.

한편 상호 補完的이라는 것은 만약 平等이 없으면 自由는 排他的이고 따라서 抑壓的인 특권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選擧權의 擴大를 통하여 政治權力이 平等化 되는 것이 民主主義라고 한다면, 가령 大衆에게 平等한 政治勢力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大衆은 自由의 抑壓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平等하여 짐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自由를 향유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平等과 自由는 서로 補完的이라는 見解를 토끄빌은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人間이 必要로 하는 것은 平等하게 充足시키는 것이 困境으로부터의 인간의 解放을 뜻한다. 또한 모든 사람을 平等하게 尊敬하여야 한다는 것은 搾取와 蔑視로부터 解放시키는 것을 意味한다. 이상과 같이 보면 평등의 원칙은 人間解放이라는 原則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人間解放은 自由主義도 부르짖는 바이다. 그래서 自由와 平等은 서로 補完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14]

오늘날의 自由民主主義的 福祉國家에서는 市民的 自由를 누리는데 平等뿐만 아니라 政治權力의 행사에 있어서의 平等과 機會均等을 포함한 社會的인 平等

---

12) Guido de Ruggiero, the History of European Liberalism(trans.) by R. G. Collingwood (Boston, Bacon Press, 1959), pp.373~374.

13) G. H. Sabine. The two Democratic Traditions, The Philosophical Reviow, vol.61(October, 1952), p.452.

14) John Baker, Arguing for Equality(London : Verso, 1987), pp.84~85.

과 그리고 經濟的인 平等을 보장하려고 한다.

한편 自由도 여러가지 側面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財產權을 행사할 自由와 經濟的인 平等의 問題가 가장 尖銳하게 대립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福祉政策을 통하여 平等 그 自體를 최고의 價値로 두는 것인지 혹은 自由와 平等은 우열을 가릴것이 없이 똑같이 模倣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 우선 따져볼 필요가 있다.

財產權을 享有할 自由와 經濟的인 平等의 관계처럼 自由와 平等이 서로 排他的인 경우가 많으면 問題는 어려워진다. 經濟的인 平等을 이루기 위해서는 빈자의 편에 서서 부자의 私有財產權을 急進的인 방법으로 변경시키려는 것은 곤란하다. 어는 누구든지 그것은 體制全體를 위태롭게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自由에 대한 權利를 탈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財產權 옹호만을 집착하려는 사람들도 自由란 平等에 대한 欲求가 만족되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귀를 귀울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 누가 빈자 이거나 부자 이거나 혹은 부르조아 階級에 속하거나 프롤레타리아에 속하거나 간에, 자신이 어느 측에 있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모두가 같이 發展하여야 하는 社會라는 그물에 얽혀있다는 것을 깨닫고 公共善을 이룰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을 講究하여야 한다.[15] 이러한 것을 認識하기 시작한 초기의 自由主義는 機會有機體說에 影響을 받아서 즉 人間은 '社會의 産物'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고립된 個人이라는 입장보다도 '社會內에서의 개인'이라는 입장에서 積極的인 自由를 옹호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平等을 통하여 人間의 個性이 자유롭게 發展될 수 있어야

---

15) Guido de Reggiero, op.cit., pp.372~373.

한다는 民主主義와 人間의 個性을 尊重하는 自由主義가 結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16]

(3) 主權在民 原則

主權在民이란 權力이 地域社會의 일부나 특정 個人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構成員 전체에 속한다는 뜻이다. 民主主義國家에서는 아무리 國民들이 그 權力을 國家에 줄 수는 없다. 예컨대 사람의 어떤 權利는 國家權力의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시켜야만 民主主義 國家지, 그렇지 못하면 民主主義 國家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制限된 國家權力' '均衡과 牽制를 通한 三權分立' '憲法에 依한 政府'가 民主主義의 不可缺한 要素라고 主張한다.[17] 또한 法的으로 國民에게서 그러한 權力이 나온다는 말은 政府의 行動이 항상 國民意志의 秩序 整然하고 非暴力的인 表現에 대응해서 나온다는 뜻으로, 國家의 法的 權力뿐 아니라 실체상의 支配權도 國民에게서 나온다는 뜻이다. 또한 地域社會의 어떤 특정한 階級이나 他人이 아니라 전체 構成員이라 함은 긴 說明을 必要로 하지 않는데, 만약 몇 사람이나 어떤 階級에 그런 權限이 속해 있다면 그것은 貴族主義나 寡頭政治는 될지언정 民主主義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市民 參與의 原則(Citizen involvement)

사실상 民主主義를 정의하는 특징중 根本的인것 중의 하나는 市民들이 直接的이든 그들이 選擇한 代表들을 通해서든 政治的 決定에 參與해야 한다는 것이다.[18]

民主主義 政治에서 權力을 가진 자는 어떤 政策을 執行하고자 할 때에는

---

16) 이종은, 전게서, p.168.
17) 전득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비교" (서울, 행림출판사, 1991) pp.73~74.
18) 허재일 역, "현대 비교정치 이데올로기" (서울 현학서관, 1981) pp.54~55.

언제나 수시로 國民의 意思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가 前提되어야 한다. 첫째, 公共政策에 있어서 진정한 市民의 意思가 표시되어야 하고, 둘째로 權力을 가진 者는 市民이 무엇을 要求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市民의 意思를 알아낸 뒤에는 그것을 여러 가지 方法으로 充實하게 行動으로 옮겨야 한다.

市民參與의 制度的 장치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중 몇 가지만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19]

첫째, 定期的 選擧를 通한 國民代表의 선출이다.

現代國家의 領土 및 인구의 크기는 옛 아테에나 미국의 뉴잉글랜드에서 나타났던 直接 民主主義의 實施가 不可能하므로 부득이 代議政府制를 통한 間接民主主義制度를 實踐하고 있는 처지여서, 定期的 選擧를 通한 國民의 代表(大統領 또는 國會議員)을 선출하는 制度야말로 市民參與의 基本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選擧는 憲法과 法律로 정하고 일정한 期間을 두고 施行하되 무엇보다도 절대비밀이 保障되어야 한다. 즉 公正한 選擧야말로 民主主義의 가장 基礎가 되는 원칙이다.

둘째,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의 保障이다.

定期的 選擧를 통한 國民代表의 選出이 眞情한 意味에 있어서 市民(國民)參與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選擧의 生命인 자유스러운 意思 表現과 政治活動이 保障되어야 한다. 그것은 眞情한 言論·出版의 自由를 通해서 각 利益集團의 利益과 主張을 表出할 수 있으며, 表出된 利益과 主張이 자유스러운 政治的 集會와 結社를 通해 政治勢力으로 凝集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9) 전득주,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비교" pp.74~76.

다시 말하면, 現代國家에 있어서의 民主政治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政黨이 있고, 그들은 여러 階層의 社會構成員의 利益과 主張을 각각 代表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政黨·政治活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保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적 選擧가 아니다.

言論·出版의 自由는, 더 나아가서 政府가 하는 일의 是是非非를 通해 住民의 편에서 政府와 國民代表를 감시하는 役割을 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眞情한 言論·出版의 自由없이 民主主義를 期待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一般的 見解다. 한편 市民(國民)들은 자유로운 集會와 結社를 通하여 政黨 이외에도 각종 社會利益集團을 組織하고 그것에 가담함으로써 정부의 政策決定 過程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5) 法의 支配의 原則(rule of law)

法에 의한 支配 그 자체는 반드시 民主主義와 結付시킬 필요는 없으나 오늘날 民主主義 政治의 實踐過程에서 중요한 要素라 할 수 있다.

民主主義에서 選出된 代表는 法의 制定에 參與나 오직 法에 의하여야 한다. 한번 公布된 法은 최고이며 그 때부터 그 法을 만든 사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代表들이 法을 改正하는데 참여할 수 있으나, 그것이 改正될 때까지 代表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法에 服從해야 한다.

이처럼 겉으로는 단순한 觀念은 사실 오랜 鬪爭 後에 나왔다. 그것은 民主制度의 確立을 가져온 初期 葛藤들에서 要求된 基本的 原則들의 하나다. 그 전에 왕(王)들은 神에 의해 支配할 수 있도록 任命되었다고 -王權神受說- 主張함으로써 法律 위에 있었다.[20]

---

20) 허재일 역, 전게서, p.82.

(6) 合理性(rationality)

合理性이란 民主主義의 가장 基本的인 가정 중의 하나로서, 人間이란 理性을 가지고 그것을 活用함으로써 자기 문제를 스스로 解決하고 独者的으로 運命을 開拓할 수 있는 合理的 存在라는 것을 前提한다. 이러한 合理性은 사실 너무나 樂觀的인 見解를 反映하는 것으로, 모든 人間은 천부적인 理性을 가지므로 社會에서 敎育을 받지 못했거나 技術이 없는 者들도 指導者 못지않은 合理的 思考와 行動의 能力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人間은 常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가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民主主義 理論家들은 18세기 啓蒙主義 哲學者들처럼 '人間 理性의 萬能'에 대해 크게 자신을 가지고 社會學者 파레토(Vilfreto pareto; 1848~1923)는 「一般社會學」이라는 著書에서 人間의 行動을 非論理的 行動과 論理的 行動으로 구분하고, 人間의 非論理的 行動이 論理的 行動보다 日常生活에서 확실히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또한 20세기의 월리스(Craham Wallace)도 이와 같은 見解를 披瀝하고, 民主主義의 기본가정인 合理性에 대해 異意를 提起했다.[21]

그러나 民主主義를 옹호하는 者들은 人間이 원래부터 合理的이라는 그들의 信念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民主主義는 過程으로서 그 本質은 人間間의 合意에 의한 政治를 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合意는 자유롭고도 節制있는 討論에 의해서만 表示될 수 있는바 民主主義의 政治的 決定은 感情的인 만장일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思慮깊은 合理的 人間의 責任性 있는 討論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前提條件을 강조하고 있다.

21) 전득주, 상게서, p.69.

2. 自由民主主義의 發展過程 및 限界

가. 自由民主主義의 發展過程과 實際

個人의 自由, 財産의 保障, 그리고 與論에 의한 政治制度의 統制 등을 포함하는 19세기 自由主義 政治理論은 초기에 哲學的 急進主義로 表現된다. 이 시기는 대체로 1870년대가지 이며 벤담(Benthan) 등에 의해 대표되고, 존 스튜어트 밀을 전환점으로해서 후기 자유주의는 그린(J. M. Green)에 의해 명백해졌다. 초기의 그것은 중간계급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나타났고, 후에 모든 階級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한 國家共同體를 위한 哲學으로 發展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自由民主主義는 주로 體制의 안정과 효율성의 유지를 위한 民主的 方法·節次에 중점을 두는 過程的 民主主義로 발전된다. 그동안 西歐 民主主義로 發展過程은 맥퍼슨(C. D. Macphrson)의 著書인 自由民主主義의 生涯와 時代에[22]에 잘 敍述되어 있기 때문에 西歐의 自由民主主義가 어떻게 스스로 자기 수행을 해왔는지를 그의 著書를 중심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民主主義 黎明期:

君主나 諸侯의 政治體制를 타도하기 위한 政治理論의 등장기로 대략 18세기 啓蒙主義 哲學에 영향을 받은 政治學者들로 J. Locke, J. Rousseau, J. Tefferson 등의 社會契約論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23]

---

22) C. B. Macpherson, The Life and Times of Liberal Democracy, 김규일 譯,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 (서울 : 영양각, 1984), 전득주, 「과격급진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서울 : 평민사, 1985)

23) 전득주, 상게서, p.266.

둘째, 防禦的 民主主義期:

미국 獨立革命과 프랑스 市民革命을 통하여 君主와 諸侯 政治制度는 타파되고 한 나라의 政治權力이 主權在民이라는 이름아래 實質的으로써 新興 부르조아 階層에게 돌아감으로써 新興 부르조아 階層은 그들의 利益과 意思를 防禦하기 위한 政治理論과 政治體制를 構築하려고 했다. 自由市場經濟의 原則, 私有財產制度의 保障 부르조아계급의 基本權 등을 市民民主主義는 보호하려고 했고 政治主導 勢力이 부르조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自由와 民主는 부르조아階級에게는 意味가 있었으나 그 당시의 勞動者 및 小農階層에게는 아무런 意味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 과격한 政治的 急進主義인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社會主義 내지 無政府主義가 市民民主主義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세째, 發展的 民主主義期:

이 시기는 民主的 參政權이 定着되고 積極的 意味의 自由가 强調된 20세기 初盤이라고 할 수 있다.[24]

市民民主主義가 國民의 大多數를 차지하고 저소득층의 利益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倫理道德的 批判이 제기되고 구라파에 社會主義 運動이 격렬하게 전개되면서 西歐 自由民主主義의 政治理論은 어쩔 수 없이 부르조아의 이익을 옹호할 뿐만아니라 低所得層의 人間으로서의 資質을 發展시켜주는 與件의 形成이라는 방향에서 自由民主主義를 수정해 나갔다.

이러한 수정 과정에서 國家로 부터의 自由 또는 束縛으로 부터의 自由 등 消極的 意味로 부터의 國家의 積極的 介入으로 社會福祉의 實現을 통한 大多數의 福祉 現實 등 積極的 意味의 自由로 그 강조점이 轉換되었다.

---

24) 김규일, 전게서, pp.108~115.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러시아에서는 볼세비키 혁명을 통한 共產主義政權이 수립되었을 뿐만아니라 西歐에서는 히틀러의 나치즘과 뭇솔리니의 파시즘이 등장함으로서 西歐의 自由民主主義는 2차대전이 끝날때가지 커다란 위기에 逢着하게 되었다.

네째, 均衡的 民主主義期:

西歐 先進國家는 제2차대전에서 勝利함으로써 이제 政治的으로 그 參政權이 각 社會階層에 광범하게 擴大되고 社會經濟的으로 福祉政策으로 인한 社會階層 사이의 葛藤이 크게 완화되었다.

다시말해서 西歐社會는 多元的·開放的社會로 變貌하게 되었다. 또한 社會 각 部分의 엘리트 勢力이 다른 部分의 엘리트 勢力을 一般的으로 支配하는 樣相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多元化된 각 社會階層 내지 구조의 엘리트들의 議會에 均衡있게 代表되어 제반 社會勢力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가 均衡있게 통합조절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均衡的 民主主義는 20세기의 支配的 理論으로 存在하고 있다.

다섯째, 參與的 民主主義期:

1960년대 말부터 이른바 歐美의 新左派 運動勢力은 均衡的 民主主義가 각계각층의 利益을 대변한다 하지만 그 실제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엘리트 연합에 의한 政治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政治過程에 底邊大衆 즉 民草(Grass-root)의 의사와 利益이 實質的으로 대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民草의 意思와 利益이 實質的으로 대변되는 民主主義를 그들이 參與的 民主主義라고 부른다.[25]

25) 전득주, 전게서, p.267.

이상과 같이 西歐民主主義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에 상당한 修正 補完을 통하여 發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現在 西歐 自由民主主義 實際는 어떠한가? 西歐의 自由民主主義를 대략 民主的 法治主義와 社會 福祉主義를 그 核心內容으로 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西歐의 自由民主主義가 指向하는 基本的 價値들이란 個人의 自由 任意의 逮捕, 拘禁 및 告發에 대한 法的인 保護, 國家權力의 엄정한 分立, 各界各層 및 構造들간의 相互監視와 均衡 및 社會保護制度의 確立 등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오늘날 先進國의 憲法은 自由民主主義의 基本秩序를 核心的 內容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破壞하거나 廢止할 수 없도록 憲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西歐 自由民主主義는 與黨과 野黨이 서로 敵이 아니라 하나의 全體社會 속에서 단지 政治的 權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變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26] 때문에 이러한 全體社會 속에서 憲法과 그 예하 法律(客觀的 權利)과 個人的 良心의 自由(主觀的 權利) 사이의 緊張은 無限히 認定되고 있다.

西歐의 自由民主主義는 停滯的이 아니고 力動的 政治로 理解하고 있는 바, 基本權은 어디까지 서로 相異한 의사와 利益을 위하여 경쟁하는 政治勢力들 혹은 社會勢力들을 적어도 어느정도의 合意속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規定에 拘束시키고 있는 것이다. 結論的으로 오늘날 西歐 自由民主主義 理論과 實際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져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西歐 自由民主主義는 政治的·經濟的 民主主義의 實現을 넘어서서 社會的 民主主義 實現 즉 社會福祉와 社會正義 증대 및 敎育의 民主主義가 이루어

---

26) Ernst Forsthoff, Rechtsstaat im Wandel(Munchen, 1975), p.30.

짐으로써 인간의 삶의 質을 提高시켜주고 있는 人間다운 社會建設의 過程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7]

나. 自由民主主義 理論의 限界 및 可能性

맥퍼슨에 의하면 西歐 自由民主主義 社會는 두개의 極大化의 論理에 의해서 正當性을 주장해 왔다고 한다. 하나는 自由民主主義가 個人의 힘을 極大化시킨다는 주장이다.[28]

이러한 主張들은 각각 獨自的인 難點을 갖고 있어 妥當性을 缺如하고 있다고 한다. 效用 極大化의 難點은 첫째, 각 個人들이 特定의 사물을 획득함으로써 얻은 滿足은 단일 척도로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效用을 公評하게 極大化한다고 主張하기 위해서는 資本이나 所得의 주어진 分配가 公正하다는 것이 證明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證明될 수도 없고 公正 分配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힘의 極大化 主張의 난점은 資本主義 市場社會가 힘을 極大化하기 보다는 오히려 힘의 轉移[29]를 낳아 個人들의 힘을 減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30]

그러나 自由民主主義 理論의 根本的인 어려움은 그것이 결코 結合될 수 없는

---

27) 전득주, 전게서, pp.270~271.

28) C. B. Macpherson, Democratic Theory(Oxford : Clarendon Press, 1973), p.4.

29) 맥퍼슨에 의하면 토지나 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는 다수의 힘의 일부가 토지나 자본을 소유하는 소수에게로 순수 전리된다고 한다. 이러한 힘의 전리(transfer of power)는 생산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힘의 전리」라는 개념은 맑스의 '착취」개념과 거의 동일한 의미지만 맥퍼슨이 '착취」를 사용하지 않고 '힘의 전리」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데올로기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30) C. B. Macpherson, Ibid. pp.6~11.

두개의 正當化 主張을 結合하려는데 있다고 한다. 특히 效用 極大化의 主張體系는 資本主義 市場社會에서의 힘의 轉移와 密接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自由民主主義 理論에 根本的 限界를 부여하는 요소라고 한다. 따라서 以下에서는 效用 極大化의 主張體系, 특히 所有的 人間觀과 힘의 轉移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自由民主主義 理論의 民主的 再構成의 可能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資本主義 市場社會에서 힘의 轉移가 發生하는 直接的인 原因은 모든 資本과 資源들이 小數의 資本가들에 의해서 所有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맥퍼슨은 資源의 不平等한 分配는 資本主義 市場社會와 함께 등장하였던 核心的인 資本主義 經濟制度인 無限財產 蓄積權의 確立에 起因한다고 본다.

個人 能力의 自然的 不平等을 前提할 때 無限 私的 所有權을 일단의 소수 資本家들의 손에 모든 勞動手段을 集中시키게 되기 때문이다.[31] 맥퍼슨은 이러한 無限 私的 所有權은 資本主義 市場社會 以前의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西歐에서 資本主義 市場社會가 形成되면서 必須的으로 要求되었던 새로운 종류의 所有制度였다고 한다.

따라서 正當性을 必要로 하였는데 그러한 要求는 古典的 自由主義 理論에 의해서 充足되었다고 한다. 古典的 自由主義 理論은 두가지의 價値判斷을 함으로써 無限 私的 所有權에 正當性을 부여 하였는데, 하나는 勞動과 報酬의 配分이 權力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個人의 자유로운 選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選好이고, 다른하나는 生產性의 끊임없는 增大, 혹은 稀少性에 대한 끊임없는 鬪爭을 人間의 최고의 目標로 보는 것이다.

특히 後者의 價値判斷은 록크와 홈에게서 명백히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價

---

31) Ibid., p.17.

値判斷에서는 人間의 本質과 稀少性에 대한 새로운 假定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人間은 無限한 慾求者이며 道德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無限한 慾求의 合理性의 槪念도 人間의 無限한 慾求에 대한 相對的인 것으로 認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32]

그리고 稀少性에 대한 이러한 假定을 하는 순간, 人間의 진정한 課題는 生計를 유지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人間의 無限한 慾求에 대한 稀少性을 克服하는것, 즉 生產性의 無限한 增大가 되었다는 것이다.[33]

따라서 17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無限한 慾求의 合理性의 假定을 포함하는 效用의 無限한 消費者로서의 人間觀과 無限한 慾求에 대한 稀少性의 槪念은無限 私的 所有權에 대한 本體論的 正當性을 提供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消費者的 人間觀과 無限한 慾求에 대한 稀少性의 假定은 資本主意 市場社會를 낳았으며 또한 그 社會에 의해서 生產되어 왔다고 한다.[34]

그러므로 所有的 市場社會에서의 힘의 轉移는 制度的 次元에서의 無限 私的 所有權의 確立에 基礎하고 있지만, 보다 根本的인 本體論的 基盤으로서 效用의 無限한 慾求者라는 效用의 消費者로서의 인간관에 基礎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맥퍼슨은 힘의 轉移가 일어나게 되는 인과 고리를 다음과 같이 表現하고 있다 "사회의 가장 活動的인 부분에 의한 無限한 受容은 無限한 慾求가 自然的이고 合理的이라는 信念의 受容은 無限한 占有權을 確立하게 되고, 無限한

---

32) Loc.cit.
33) Ibid., pp.17~18, p.31.
34) Ibid., p.19.

占有權의 確立은 物理的인 勞動手段의 所有의 集中을 낳고, 이러한 勞動手段의 集中的 所有는 持續的인 힘의 轉利를 낳는다."

이와같은 分析으로부터 自由民主主義 理論의 內的 矛盾이 明白하게 도출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自由民主主義 理論의 內的 矛盾은 좀더 具體的으로 보면 두 개의 正當化 主張 사이의 理論的 矛盾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즉 힘의 極大化의 主張과 兩立하지 않는 것은 效用을 極大化한다는 主張이 아니라 效用을 極大化하는 特定의 方式이다.

그것은 無限 私的 所有權을 포함하는 市場動機의 體系와 市場理論의 體系이다. 또한 自身의 人間的 힘의 發揮者, 行爲者, 享有者로서의 槪念과 兩立하지 않는 것은 效用의 無限한 慾求者가 아니라 無限한 所有者로서의 人間觀이라는 것이다.[35]

다시말해서 힘의 極大化의 主張과 根本的으로 相衝되는 것은 西歐 社會에서의 힘의 轉利를 결과하는 모든 理論的 제 요소이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이 無限한 所有的 人間觀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힘의 轉利를 正當化함으로써 自由民主主義 社會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西歐 自由民主主義 社會를 民主的이고 道德的으로 만들어 非西歐 世界와의 競爭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效用의 無限한 慾求者, 效用의 無限한 消費者로서의 人間觀과 無限한 慾求에 대한 稀少性이라는 市場的 假定의 除去가 絶對的으로 要請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無限한 慾求와 稀少性에대한 市場的 假定을 버리는 것이 可能한가? 맥퍼슨에 의하면 오늘날의 技術革命이 人類에게 提供하는 高度의 生產性의 水準은 그러한 市場的 假定을 버릴

---

35) Ibid., pp.33~35.

수 있는 可能性을 提供한다고 한다. 市場的 假定은 生産과 資本의 蓄積을 위한 誘引으로써 要求되었던 것으로, 20세기 후반의 技術革命이 提供하는 고도의 生産性의 展望이 그러한 誘因을 더 이상 必要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6]

따라서 맥퍼슨은 오늘날의 西歐 社會는 技術革命이 提供하는 機會를 絶對的으로 포착하여 현재의 非民主的이며 非人道的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效用의 無限한 消費者'로 부터 '自身의 人間的 힘의 發揮者, 享有者'로의 인간관의 변화가 必須的이라고 한다.

36) Ibid., pp.19~23. pp.36~38.

Ⅲ. 韓國에서의 自由民主主義 受容·展開過程

日本植民統治로 부터 解放·獨立된 이후 40여년간의 韓國政治史에 있어 支配的인 政治規範은 自由民主主義 原理였다. 이 理論은 一般國民의 政治的 熱望의 表現이었을 뿐 아니라 執權을 希望하는 政治人들에게는 統治 正當性의 源泉이 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自由民主主義의 理念은 최소한 공개적으로 범할 수 없는 政治的 神聖性을 代表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自由民主主義가 西歐에서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社會的 基盤이 韓國의 경우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즉 西歐의 市民階層에 該當되는 社會勢力이 전혀없거나 아니면 대단히 미약하게 形成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37] 이러한 점에서 볼때 自由民主主義가 그렇게 長期間 동안 강력한 政治規範으로 남아있게 된 것은 수수께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自由民主主義의 政治理念이 한국에 導入되고 지난 40여년간 展開되어 온 歷史的 상황을 고려한다면 비록 그 形式과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변모되어 있지만 自由民主主義가 어떻게든 維持되어 온 事實을 전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

37) 해방후 40여년의 韓國政治史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狀況圖, 특히 自由主義에 관련된 知的 狀況圖에 대한 체제적 연구가 미흡한 편이나, 한국정치와 사회에 있어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위치에 관한 적절한 글로는 노재봉, "한국에 있어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주주의, 한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한국정치와 이데올로기", 「사상과 실천」(서울 : 녹두, 1985)

本章에서는 이러한 自由民主主義가 解放後 한국의 現實的 상황하에서 어떻게 受容 展開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解放後 韓國의 社會 政治的 遺産과 自由民主主義의 受容

가. 解放後 韓國의 社會 政治的 遺産

大韓民國이 1948년 公式出帆한 지 얼마 안 있어 6·25 동란이라는 悲劇을 겪어야만 했다. 이로 인하여 正常的인 國家 建設의 基盤은 거의 모두 破壞되었으며 그 후유증은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모든 分野에 있어 걷잡을 수 없는 混亂을 惹起시켰다.

이러한 傳統과 混亂속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外來文化와 傳統文化 사이의 葛藤도 심각하였다. 이와같은 의식 내지 價値論의 혼돈상태는 또한 無原則한 生存競爭의 社會病理를 유발하여 韓國 青少年의 生活空間으로서 韓國社會環境은 한마디로 '萬人의 萬人에' 대한 鬪爭 바로 그것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또한 韓國의 政治는 이렇게 어려운 與件과 상황을 克服하고 國民의 基本權을 보장하여 個人과 集團의 相異한 理解關係를 統合·調整시키고, 對外的으로 뚜렷한 正體性을 나타낼 수 있는 未來指向的 비전을 提示하는데 확고히 成功할 수 없었다. 다만 60년대 초부터 推進되기 시작한 經濟發展政策으로 國民發展의 物質的 基盤을 다지는 데에만 成功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黃金萬能主義, 物質主義, 한탕주의, 適當主義 등의 社會風潮를 蔓延케 하여 아직도 解決하여야 할 문제는 도처에 산재해 있다.[38]

---

38) 현대사회연구소, 「2000년대를 향한 韓國人像」 (서울, 1982)

특히 1978년의 10·26事態를 前後하여 우리는 일찌기 經驗하지 못했던 가혹한 試練을 또한 겪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슬기로 단합된 힘으로 國際的 危機와 不滿을 克服하고 第5共和國에 이어 第6共和國을 誕生시키는데 成功하였다. 韓國의 政治理念의 定立과 活性化를 위한 지난날의 政治·經濟·社會·文化的인 諸遺産들과 前者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整理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政治文化의 權威主義的, 地方中心的, 新民文化的 性格에서 비롯된 대부분의 社會價値들의 政治權力에의 集中現狀이다.[39] 둘째, 물량위주의 高度經濟 成長政策과 重商主義的 資本主義 路線을 추구해 온 결과, 社會全般에 만연된 物質主義, 黃金萬能主義 그리고 人間 道德性의 墮落으로 인한 社會紀綱의 瓦解現狀이다.[40] 셋째, 傳統的인 官尊民卑 思想이 완전히 改善되지 못한채 官主導型 開放政策을 遂行해 왔던 탓으로 아직도 是正되지 못하고 있는 官僚主義 경향이다. 네째, 西歐文物에 대한 主體的인 消化能力을 갖추지 못한채 각종 制度와 文化를 導入 함으로써 傳統文化가 正常的으로 꽃피지 못하고 동시에 그로 인한 價値觀의 歪曲 내지 混沌狀態이다. 다섯째, 敎育制度上 美國이나 日本의 그것을 自主的으로 受容하지 못한 결과 非人間的, 利己主義的 人間만을 양산시킴으로써 理性의 倫理的 側面이 무시되고 科學的·機械的 理性만이 무비판적으로 尊重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 외에도 지적해야 할 否定的 遺産은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 위에서 열거한 問題點들에 대해 現在의 旣成世代보다 철저히 批判的 認識을 확고히 하고 社會

39) 한승조, 「한국민주주의와 정치발전」 (서울 : 법문사, 1979), p.129.
40) 김대환, "한국의 정치사회의 현실과 그 발전 과제", 「국가발전을 위한 지도자 간담회 보고서」 (한국정신문화원, 1982), pp.155~157.

倫理的으로 成熟된 社會, 開放된 社會, 고도로 産業化된 社會로의 離陸을 위해 積極的인 자세로 앞으로 이 民族을 이끌어 나갈 青年 學生들로 하여금 希望的인 先進祖國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들을 政治理念的으로 人導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旣成世代는 青年 學生들을 위해 自由民主主義가 韓國이라는 터에서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現實的 基盤을 굳건히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41]

나. 自由民主主義의 受容과 그 意味

自由民主主義 思想이 韓國 內部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의 開化思想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學者도 있고 1900년대부터라고 主張하는 學者도 있다.[42] 아무튼 그 후 3·1運動이 일어나면서 自由民主主義 思想이 정착되기 시작하였고, 上海 臨時政府는 自由民主主的 憲法을 갖고서 — 물론 第1共和國 憲法과 構造的 차이는 있지만 大韓帝國이 아닌 大韓共和國을 建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43] 그러나 西歐 自由民主主義 理念이 標榜되고 憲法에 의해 制度化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大韓民國이 樹立한 시기부터 이다. 이처럼 짧은 憲政史속에서 自由民主主義는 受容 당시부터 많은 迂餘曲折을 겪게 되었다. 우선 西歐의 自由民主主義가 韓國의 國家理念으로 形成하게 된 背景을 國際 政治的 側面에서 살펴 볼 必要가 있다.

---

41) 전득주, 「과격급진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서울 : 평민사, 1985), pp.279~281.
42) 진덕규, 송복, "자유민주주의의 최소요건", 「월간조선」, 1986년 8월호, p.138.
43) 상게논문

(1) 自由民主主義의 受容과 背景

볼세비키 革命 以前까지만 하더라도 資本主義 對 社會主義 또는 自由民主主義 對 共産主義의 對決은 개별 國家社會 內部의 政治的 문제였다.[44] 즉 相異한 政治的 見解를 지닌 集團들 간의 競爭적 對立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1917년 러시아 볼세비키 革命 以後, 이들 政治的 見解들을 단순한 '政治 理念'의 次元을 넘어 '國家理念'으로 化하게 되었다. 社會主義 내지는 共産主義를 建國의 指導理念으로 내세우는 國家가 西歐 政治史上 처음으로 登場하게 됨에 따라 資本主義 내지는 自由民主主義도 西歐諸國의 排他的인 國家 理念으로 명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國家間의 利害關係 葛藤이 (國家)理念에 의해 正當化됨으로써 나타난 社會의 악화는 2차대전 기간동안 불편한 協助 體制를 지녔던 미국과 소련이 각각 自由民主主義 理念블록과 共産主義 理念블록을 主導하면서 對決狀態로 들어감으로써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트루만原則'의 宣布와 더불어 분명해진 冷戰體制의 構築이 그 예이다.[45]

---

44) 여기에서 자유민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치체제의 차원에서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경제원리의 정치적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그리고 공산주의 정치원리의 경제적 표현이 사회주의를 이해되고 있다. Leon P. Baradat, Political Ideoiogies: Their Origins and Impact, 2nd ed.(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4) 참조.

45) 미국에서 1947~1956년간 당시 위스콘주 상원의원이던 Joe McCarthy의 좌경용공척결 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약 2,700명이 해임, 1,200여명이 사임하였으며, 교사·교수는 약 600명 가량이 실직되었고, 사기업체 종업원은 약 5,000명이 실직당하는 한편, 할리우드 블랙리스트(Hallywood Blacklist)에는 감독·작가·배우 등 약 250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노조에 있어서는 40여개가 좌경단체로 낙인찍혀 박해·파괴당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Anthony Arblaster의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Liberalism(Oxford Basil Blackwell, 1984), pp.313~316.

그리하여 2차대전의 終熄과 더불어 解放을 맞이한 韓國은 南과 北에서 미국과 소련군에 의해 각각 分割統治 상황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이 南과 北을 分割 占領하게 됨을 기화로 그들의 國家理念을 韓半島의 南北에 각각 강요하게 된 것은 당연한 理致이다.[46] 南韓과 北韓에서 각각 對立된 國民國家의 實質的 주인이어야 할 國民 大多數에게 생생한 外來 理念들이 이렇게 하여 양국의 國家理念으로 '外部的'으로부터 된 것이다.

(2) 自由民主主義와 反共 이데올로기

大韓民國이 國民國家로 出帆하면서 採擇한 國家理念이 이데올로기의 國際政治와 맞물려 外部的으로 부과된 것이라는 事實이 意味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國家理念으로서의 自由民主主義가 國民들 속에 충분히 內面化되어 있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西歐의 경우에서 처럼 國家에 先行하여 成長한 市場社會가 강력하게 發展시켜 온 政治的 經濟規則과 이를 正當化하는 信念體系가 存在했던 것이 아니고 보면 韓國에 있어서 國家理念은 처음부터 空虛한 規範으로 그칠 위험성이 농후하였다.

國家理念을 지킬 支配的 社會勢力이 市民社會內에 不在하였기 때문이다. 自由民主主義의 理念은 그것에 대한 대다수 國民의 積極的 認知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소수의 政治 엘리트들에 의해 國家理念으로 採擇되고 憲法속에 明文化되었다.

美軍政 3年 동안의 격렬한 左·右 理念對決이 48년 우익 單獨政權 樹立으로 人爲的인 終末을 보게 되었을때 自由民主主義 理念은 여전히 市民社會間 支配

---

46) 이점에서 미국을 하지의 포고문 문구를 그대로 좇아 '점령군」으로 그리고 소련군 치스차코프에 포고문 문구를 그대로 좇아 '해방군」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려는 일부 극단주의적 문제 인식은 매우 타당하지 못하다.

的인 힘－그람시적 意味에서 헤게모니－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었다. 共產主義와의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차원에서 이해된 自由民主主義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對決的 存在인 大韓民國의 國家理念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建國 前後의 政治的 상황하에서 自由民主主義가 國家의 統治行爲를 正當化시켜 주는 이데올로기 차원으로서의 역할을 遂行하기에는 韓國 社會內에 土着的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自由民主主義가 土着化디고 헤게모니적 지위를 누리게된 것은 韓國 社會가 3년여의 한국전쟁을 經驗하고서 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47]

6·25는 南韓 주민들에게 共產主義 體制가 顯在的 敵對勢力임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契機가 되었고[48] 따라서 적어도 否定的 問題認識을 통해서나마 自由民主主義로 內面化시켜주는 事件이 되었다. 戰爭을 經驗한 韓國 社會는 旣得權을 保障하는 政治的 競技規則을 正當化하는 것이 自由民主主義임을 또한 깨닫게 된 것이다.

自由民主主義 國家理念에 대한 認識의 普遍化가 戰爭의 쓰라린 經驗과 더불어 否定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후의 政治過程에서 自由民主主義의 積極的인 具現이 순조롭게 進行될 수 없음을 예견하는 것이다. 權威主義的 政治勢力이 反共은 곧 自由民主主義라는 역설을 펼 수 있는 政治環境이 조성된 탓이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實體化된 安保危機가 反共理念을 普遍化시키고 그리하여 自

---

47) 노재봉, 전게서, p.336; 그리고 박상섭, "한국정치와 자유민주주의", 「현대정치와 국가」 (서울 : 법문사, 1987), p.413.

48) 최장집, "총론 : 해방 40년의 국가·계급구조·정치변화에 대한 서설", 「한국현대사 Ⅰ」 (서울 : 열음사, 1985), pp.38~39.

由民主主義를 지키기 위하여 反共을 하여야 한다는 論理가 反共을 위해 自由民主主義를 制約할 수 밖에 없다는 論理로 비약할 수 있는 政治狀況은 전쟁중에 急造된 自由黨의 旣得權 확보 努力에 의해 效果的으로 造作되었다. 그 결과 國家 理念인 自由民主主義는 自由黨이라는 統治集團이 그들의 旣得權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한 反共理念에 의해 훼손되었다.

反共理念은 權威主義 政治權力이 스스로를 正當化하기 위해 활용한 政治理念인 탓으로 國家 理念과 구분되는 意味에서 이를 '政治理念'이라고 부를 수 있다.

國家理念에 制約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統治理念이 위세를 떨칠 수 있기에는 建國以後 權威主義的 統治勢力에 旣得權을 지니는 政治勢力이 뚜렷하게 形成된 탓이 크다. 52년에 自由黨이 結成됨으로써 그러한 政治勢力이 자리를 잡고 影響力은 自由民主主義를 '集團的 行動의 목표로만 强調'하면서 實際的 차원에서의 '個人的 自由와 眞理의 保障과 伸張'은 소홀히 취급하였다.[49] 다시 말하면 "李承晩 政權은 自由民主主義가 자신의 政治的 이익에 위배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 理念이 갖는 普遍注意 原則을 준수할 의사가 없었다."[50]는 점에서 反自由主義的이었다. 그 理念은 政治·經濟面에서 實質的인 權力을 장악했던 市民階層에 의해 旣存秩序의 유지를 위해 사용된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특정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權威主義 政權에 對抗하는 抵抗이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면이 더 커졌다. 결국 기울어져가는 權力을 붙들어두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

---

49) 이홍구,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문화",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법문사, 1985), p.142.

50) 박상섭, "한국자본주의와 정치체제", 김성국외 「한국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p.117.

시도된 3·15 不正選擧에서 폭발한 市民的 抵抗은 統治理念이 이제 더 이상 權威主義的 政治實現을 正當化 할 수 없다는 것을 표방하였다.

自由民主主義 國家理念의 原則들이 실제 政治環境에서 具體化 되기를 강력히 要求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4·19를 성사시킨 것이었다. 50년대의 全期間을 통해 反共이 곧 自由民主主義라는 倒錯된 論理가 支配的이었다. 특히 權力 엘리트들에 의해 신봉된 否定的 自由民主主義觀은 自由民主主義의 實質的 價値를 위협해 왔다. 積極的 意味와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국민들의 要求는 否定的 意味의 自由民主主義를 信奉하는 權威主義 政治權力과 持續的인 不協和音을 일으켜 왔다 4·19는 그 결과였으며 5·16은 그러한 不協和音을 더욱 高潮시키는 根本原因이 되었다.[51]

2. 5·16 軍事政府의 登場과 以後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挑戰

일부 極少數의 政治軍人들에 의한 5·16군사 쿠데타는 4·19를 정면으로 否定하는 것이었다. 權威主意 政治現實을 正當化하는 統治理念이 國家理念을 제압하는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하는 努力은 民主政權하에서 제대로 결실을 맺기도 전에 보다 더 강력한 權威主義 勢力에 의해 抑壓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실 4·19에 의해서 權力을 掌握할 수 있었던 民主政權治下의 기간을 韓國政治史에 있어서 自由民主主義 實驗으로서는 유일했던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52] 아무튼 權威主義的 軍事政權의 단추를 연 5·16이 4·19를 否定하면

51) 박광주, "한국의 국가이념과 현실", 「한국정치학회보」, 제 22 집 2호(한국정치학회, 1988), p.40.

52) 民主黨政府의 등장과 실각 과정에 대해서는 Seung Joo Han, The Failure of Liberal Democracy in korea(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7)

서 스스로를 正當化하는 名分理念으로 제시한 것은 國家安保와 祖國近代化 두가지였다. 國家安保를 위한 反共만을 統治理念의 내용으로 삼을 수 밖에 없었던 50년대의 權威主義 體制에 비해 훨씬 강화된 統治理念을 지니게 된 것이다. 反共 이데올로기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統治勢力이 바로 軍部勢力이라는 사실 때문에 李承晩 政權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통치 이념을 내세울 수 있었다. 50년대 말부터 피폐화된 經濟 狀況속에서 나타난 民心의 動搖를 感知하고 經濟發展이 時代的 要請임을 認識할 軍部勢力은 "絶望과 飢餓線上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解決하고 國家 自主經濟 再建에 총력을 경주한다"[53] 는 것을 표방함으로써 權威主義的 統治의 중요한 名分을 획득하였다.

軍事政府가 가장 역점을 두고 施行한 쿠데타 이후의 政策은 '祖國近代化' 작업 이었다. 產業爲主의 發展 戰略을 그 內容으로 하는 經濟發展計劃의 樹立과 施行을 통한 近代化 작업은 軍事政權의 存在理由와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한 當面課程였다.

產業化와 政治的 權威主義는 이처럼 서로 간의 강력한 選擇的 親和力을 지니고 처음부터 竝存하여 왔다. 權威主義的 產業化가 意圖된 成果를 나타냄으로써 統治理念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의 推進 主體인 國家가 軍事政權의 誕生을 기다려 硬性國家의 성격을 띠게 된 탓이다. 自由黨政權이 本質的으로 軟性國家體制를 形成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5·16이후의 軍事政府나 硬性國家的 面貌를 보일 수 있었던데에는 統治엘리트의 社會的 隔離成, 兵營國家的 社會統制, 產業資本의 確保 등의 要人들이 기

53) 한국혁명재판사 편찬위원회, 「韓國革命裁判事」, 제 1 집(1962), p.925.

여하였다.

軍事政府의 登場과 더불어 權威主義가 産業化와 聯關을 맺을 수 있게 된 데에는 政治的 權威主義의 强化를 통해 硬性國家가 形成되고 이를 基盤으로 經濟發展 第一主義가 촉진된 탓이었다.[54] 反共을 國是로 삼으면서 民生苦를 解決하겠다는 발상이 權威主義的 産業化로 現實化되면서, 한편으로 積極的 意味로서의 自由民主主義的 諸原則에 대한 抑壓이 가중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産業化의 質的·量的 成長이 加速化된 것이다. 한편 自由黨 政權이 自由民主主義 國家理念에 저촉되는 權威主義的 統治를 反共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統治理念으로 正當化하려는 시도는 統治理念을 積極的으로 뒷받침해 줄 物的 基盤과 强制力的 基盤을 具備하지 못한 決定的 脆弱性으로 인하여 制約을 받았다.

그러나 物的·强制力的 基盤에 있어서 5·16이후의 統治理念은 自由黨 時代의 그것에 비해 훨씬 강력한 것이었다. 經濟成長과 그로 인한 絶對貧困의 解消, 그리고 國防力의 강화 등의 治績은 특히 60년대를 통하여 國民的 支持를 확보하는데 寄與하였다.

問題는 自由民主主義를 沮害하는 일련의 사태들 言論彈壓, 勞動彈壓 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增大되는 상황속에서 國民的 不滿은 더욱 高潮 되었다. 權威主義 政治權力은 自由民主主義 原則의 回復보다는 反共과 近代化를 內容으로 하는 統治理念을 韓國社會가 받아들이도록 强要할 뿐이었다.[55] 7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統治理念에 대한 抵抗이 增大되었다. 統治理念이 正當性의 根據로 삼고

54) 이러한 상황하에서 '집정관적 신중상주의국가'가 강화될 수 있었다. 박광주, "집정관적 신중상주의국가론 : 권위주의 국가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최상룡 外, 「현대 한국정치와 국가」, pp.187~224.

55) 박광주, "한국의 국가이념과 현실", 「한국정치학회보」 제 22 집 2호(한국정치학회, 1988), p.44.

있는 反共과 近代化에 대한 批判的 認識이 高潮된 탓이었다. 무엇을 위한 反共이며 무엇을 위한 近代化인가에 대한 자각이 증대된 것이다. 統治理念에 대한 抵抗이 증대될수록 統治理念을 强化하려는 힘간의 대결이 점차 尖銳化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5·16을 繼承·維持하려는 힘간의 對決이 점차 尖銳化 되었다. 70년대부터 民主化의 要求가 점증하게 된 直接的인 契機는 3選改憲에 의한 무리한 執權延長이 71년에 試圖된 데에도 있지만, 보다 構造的 要因은 産業化로 인한 社會經濟構造의 변화에 있다.

그동안 輸出主導型 産業化에 根據한 近代化 作業은 階層的으로는 中産層을 階級的으로는 産業勞動者들을 增大시켰다.[56] 社會經濟的 地位向上을 경험한 中産層들은 政治 參與의 要求를 增大시키게 되었고 이는 '反政治'를 표방하는 權威主義的 統治에 대한 抵抗意識을 높이게 되었다. 한편으로 勞動者들은 經濟成長과 더불어 增大되는 期待感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現實은 低賃金과 勞動權利의 彈壓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相對的 剝奪感의 增大를 經驗하게 되었다.

經濟의 總量的 成長보다는 均等한 分配를 더욱 葛求하는 雰圍氣가 形成된 것이다.[57] 70년대 以後의 民主化 要求는 그 以前 특히 4·19를 前後한 시기의 民主化 要求와 비교하여 한가지 뚜렷한 特徵을 지닌다. 즉 後者의 경우 政治的 民主化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는데 비해서, 電子의 경우 政治的 民主主義 못지않게 經濟的 民主主義가 중요시 되었다는 점이다.

經濟的 民主主義에 대한 認識의 증대는 70년대 이후 産業化 증대와 더불어

---

56) 산업화와 계층구조의 변화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박광주, "산업화와 정치체제의 변화 : 도시 중산층의 증대와 농업적 정치연합의 쇠퇴를 중심으로", 김성국외, 「한국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pp.139~189.

57)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당성 위기의 중산층 모델"을 참고할 것. 박광주, "집정관적 신중상주의 국가론", pp.213~215.

나타난 社會·經濟의 構造的 變化와 무관하지 않다. 60년대의 國民的 관심이 絶對貧困의 해소와 이를 위한 '生産'의 增大에 쏠려있었다고 한다면, 70년대 이후에는 상대적 剝奪感의 解消와 不均等分配問題의 解決에 더 많이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低賃金과 勞動彈壓에 시달려 온 産業勞動者들의 급격한 量的 增大는 이들로 부터의 分配要求가 社會的 重要性을 띠게 되는데 決定的 影響을 미쳤다.

政治的 民主主義와 더불어 經濟的 民主主義에 대한 要求가 대두하였다는 것을 自由民主에 대한 要求가 대두하였다는 것을 自由民主主義 內容이 보다 具體化 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自由民主主義 理念의 內容이 이처럼 具體化되고 그 內面化가 深化될수록 權威主義的 政治現實에 대한 抵抗과 統治理念에 대한 비판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民主過程을 통하여 그동안 非現實的인 國家理念을 現實化시키고, 그리하여 國家理念과 政治現實간의 乖離를 解消시키는 일이 韓國社會가 당면한 절실한 解決 課題임을 意味한다. 특히 自由民主主義는 權威主義에 의해 虛構化될 수 없다는 政治的 民主的의 要求와 自由民主主義는 分配 正義에 基礎하지 않고는 空虛한 것이 되고 만다는 經濟的 民主化의 要求가 70년대 이후 同時的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反自由民主主義的 統治理念으로 權威主義的 統治를 正當化하는 것이 그 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意味한다.[58]

58) 박광주, "한국의 국가이념과 현실", 「한국정치학회보」 제 22 집 2호(한국정치학회, 1988), p.47.

3. 6共和國 民主化 推進과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守護

70년대 이후 國民의 意識水準이 높아지고 經濟成長이 괄목할 정도로 향상되지 一般市民들은 政治的 自由와 經濟的 平等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解放以後 權威主義 體制에 물든 政治的 硬直性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國民的 慾求는 당연하다.

특히 80년대 5共和國이 들어서면서부터 政府는 '安定'을 중심으로 政策을 펴나갔으나 이러한 國民의 제반 欲求를 收容하지 못하고 空轉을 거듭한 채 國民的 불만을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國家構造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政治狀況 次元에서[59] 일부 抵抗 市民들의 社會變革論理가 대두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편승하여 極少數 左翼革命勢力圈에서는 대규모시위를 유발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온 6·29 民主化 宣言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일대 改革措置라고 할 수 있다.

본절에서는 6·29民主化 宣言이 갖는 意味와 宣言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自由民主主義 體制 守護를 위한 方向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가. 6·29 宣言의 意味와 民主化의 槪念

1948년 8월 15일 大韓民國이 樹立된 때로부터 짧은 歷史를 갖고있는 우리의

---

59) 국가구조 및 정치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onald share, "Transition to Democacy and Transition through Transration", Comparativ Political Studies, Vol.19, No.4(January 1987). pp.542~545.

憲政史는 그 연륜에 비해 많은 迂餘曲折을 겪었다. 權力構造만을 놓고 볼때 아홉번이나 憲法이 바뀌었으며, 여섯번째의 共和政을 經驗하고 있다는 事實이 그 점을 말해준다. 확실히 우리의 憲政史는 급격한 政治變動으로 특징지어져 있는 것이다.

그 급격한 政治變動은 예외없이 非憲政的으로 이뤄졌다. 4·19革命과 같이 아래로 부터의 國民革命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고, 5·16쿠데타와 같이 일부의 政治軍人들의 軍事介入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維新과 같이 執權者의 親威쿠테타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第5共和政 出帆의 端初的 계기는 維新體制를 떠받들던 執權層이 國民革命의 발달 可能性 앞에서 분열되는 가운데 大統領을 弑害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第5共和政에서 第6共和政으로 넘어가는 과정 역시 非憲政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특히 1987년 6월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시위는 非憲政的 政權交替의 可能性을 짙게 시사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6·29民主宣言이 나왔다. 당시 盧泰愚 大統領 候補는 1987년 6월 29일 大統領 直選制를 비롯한 8개항의 民主化 推進 사항을 宣言함으로써[60] 우리 憲政史上 처음으로 憲政的 政權交替가 平和롭게 實現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열었다. 6·29 民主化 宣言에 따라 우리 憲政史上 처음으로 대등한 입장에서의 與·野 合議改憲이 이루어졌다. 이 合議改憲은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이로써 새 共和政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正統性을 갖고 出帆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60) 8개항의 내용은 ① 조속한 직선제 개헌 ② 대통령선거법의 협상 ③ 사면·복권의 대폭단행 ④ 언론자유의 최대보장 ⑤기본권의 신장 ⑥지방·교육 자치실현 ⑦ 정당활동의 자유보장 ⑧ 모든 사회비리의 척결 등이다.

마련된 새 憲法에 따라 직선이 실시되고 그 결과 6·29民主化 宣言의 주창자인 盧泰愚 候補가 제 13 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우리 憲政史上 처음으로 憲政的인 平和的 政權 이양이 이루어 졌다.

이것은 우리의 自由民主主義 歷史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집권세력이 國民의 民主化 要求를 受容함으로써 國民的 合意를 形成하고 그 國民的 合意 위에서 民主主義의 方向으로 政治發展을 이룩한 최초의 先例를 세웠기 때문이다.[61] 權威主義 體制가 民主主義 體制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自由化와 民主化를 구별한다.

그 전환이 自由化의 단계를 거쳐 民主化에로 이행하는 過程을 보인다는 것이다.[62] 즉 自由化는 政策의 變化와 社會의 變化가 혼합된 채 나타난다.

예컨데 政治的인 反對勢力에 대한 寬容, 言論媒體에 대한 檢閱의 緩和를 포함한 統制의 緩和, 政治犯의 釋放, 自律的인 勞動運動의 默認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自由化는 根本的으로 市民社會와 관련된다. 이에비해 民主化는 경쟁적인 自由選擧와 複數政黨制度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고 구체적인 정치적 槪念이다. 따라서 民主化 없는 自由化는 생각할 수 있어도 自由化 없는 民主化는 市民社會를 포함하는 槪念이면서도 根本的으로는 政治社會와 관련된다는 것이다.[63] 여기에서 民主化 槪念을 좀 더 敷衍해 본다.

權威主義 體制가 民主主義 體制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한 硏究로 명성이 높은 후앙린츠(Juan Linz) 교수에 따르면 "民主主義 體制란 다원적인 社會構造를

---

61) 김학준, "한국 민주화, 어디까지 왔나", 「월간, 안전보장」 1989년 8월호, p.37.
62) 한상진 「한국 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8) p.43.
63) 강 만, "제 6 공화국 민주화의 구조적 한계와 정치상황에 논리", 한국정치학회 특별심포지움 발표논문, 1989년 6월 9일. pp.1~2.

가지고 明示的이고 體系的으로 규정된 統治 이데올로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大衆 動員은 없고 統治權의 행사는 形式的으로 엄격히 규정된 범위내에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體制를 意味한다"고 할 수 있으며, 民主化란 바로 그러한 體制로의 轉換을 推進하는 課程으로 풀이할 수 있다. 린츠 교수의 이러한 民主主義論은 다알(Robert Dahl), 사르토리(Giovanni Sartori) 그리고 베렐손(Bernard Berrlson) 등으로 대표되는 多元主義的 民主主義論의 계보에 속한다. 그러면 多元注意的 民主主義 體制의 內容은 무엇인가? 一般的으로 하나의 社會構造가 "多元的'이라 함은 그 社會의 運營이 하나의 命令體系에 의하여 下向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각 集團 및 組織體들이 平等한 관계속에서 상호 牽制와 競爭을 하면서 社會全體 均衡을 維持하는 상태를 意味하는 것같다.[64]

특히 政治的으로 多元主義 體制란 政府와 政府에 대응하는 反對勢力이 共存하며, 그러한 共存속에서 統治權을 획득하기 위한 競爭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體制를 意味하는 것같다. 이러한 體制 아래서는 統治權力이 강압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부여하는 이데올로기는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理解되며, 따라서 多樣한 이데올로기와 價値觀이 共存하는 體制로 認識된다. 그리고 統治權力이 劃一的으로 부여하는 이데올로기가 存在하지 않는다면 多數의 大衆을 動員하여 一般的인 宣傳宣動으로써 統治行爲가 統治者나 統治集團에 의해서 恣意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合法的인 節次에 따라서 形式的으로 規定된 法律과 規則에 의해서 一般 國民들이 예측 가능한 方式으로 이루어지는 體制라는 論理가 되는 것 같다.[65]

---

64) 김학준, 전게논문, p.38.

65) 양승태, "민주화와 민주화의 修辭 : 한국 민주화이념의 정립을 위한 비판적 시론", 한국정치학회 특별심포지움 발표논문, 1989년 6월 9일, pp.1011.

린츠의 民主主義 槪念 內容을 이렇게 整理할때 결국 그가 말하는 民主主義의 社會를 構成하는 기본세포들이 獨自性을 갖고 활력을 발휘하는 상태를 그의 이론은 전제하는 것이다.

나. 6·29선언 以後의 自由化와 民主化의 具體的 內容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脫權威主義化가 自由化의 단계를 거쳐 民主化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했거니와, 6·29 民主化宣言은 우리 社會를 自由化시킨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우선 自由化의 가장 중요한 징표들 가운데 하나인 政治的 反對勢力에 대한 관용이 이루어졌다. 具體的으로 말해, "國民的 和解를 위해 金大中씨 등을 赦免 復權하고 時局관련 事犯들을 대거 釋放한다." 6·29 民主化宣言 제3항은 實現되었고, 이로써 이른바 양심수 문제는 해결되었다.

自由化의 또 하나 중요한 징표는 人權의 尊重과 보장인데, 이와 관련하여 제4항은 "國民의 基本權을 최대한 신장시키기 위해 制度的 改善을 促求하며,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한다."고 約束했다. 이 約束에 따라 人間의 尊嚴性이 尊重되고 基本權이 신장되는 方向으로 많은 조처들이 취해졌다. 우선 6·29 民主化 宣言에 따른 새 憲法에서는 基本權 조항이 강화되었으며, 이어 人身의 自由를 최대한 보장하는 方向으로 刑事訴訟法과 刑事報償法이 고쳐졌다. 自由化의 또 하나의 중요한 徵表는 자유로운 言論이다. 6·29 民主化宣言 제5항인 "言論自由 暢達을 위해 관련된 制度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改善하며 言論의 자율성을 최대한 保障한다."는 約束은 實現되었다. 우선 言論의 自由를 제약한 道具로 평가된 言論基本法이 廢止되고, 言論活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方向으로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이 制定되었으며, 放送의 獨立性을 보장하고 자율기능을 확대하는 方向으로 放送法이 제정됐고, 韓國放送公社의 獨

立性을 강화하는 方向으로 韓國放送公社法이 改正됐다. 한마디로 "政府의 言論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된다."는 6·29 民主化宣言의 精神이 상당히 現實되어 왔다. 社會 모든 부분의 自治와 自律의 保障 역시 중요한 徵表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선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성의 경우 최대한 보장되어 왔고, 교육자치제의 경우 교육자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敎育法은 이미 改正됐으며, 그 現實은 地方自治制의 現實에 이어 곧바로 뒤따를 것이다.[66] 그밖에 文化藝術 방면에 있어서의 表現의 自律性도 이루어졌다. 예컨데, 公演禁止와 放送禁止의 대상이었던 가요들이 해금됐고, 未修交國家 藝術作品의 國內開放이 대부분 허용됐으며, 越·拉北音樂·美術 作家들의 작품으로서 1948년 8월 15일 大韓民國 政府樹立 이전에 발표된 것들은 解禁됐고, 무대공연이 대체로 自律化되었다. 또 해외여행의 自律化가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槪括的으로 살펴보았듯이, 6·29民主化 宣言以後 우리 社會의 自由化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 이제 古典的 意味에 있어서의 國民의 自由가 政府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사실상 매우 적은 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自由化의 다음단계인 民主化는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民主化는 一般的의 다음단계인 民主化는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民主化는 一般的으로 民主化의 개시단계와 民主化의 실행단계 및 民主化의 확립단계를 거친다.[67] 이 一般論에 비추어볼때 우리의 경우에는 이미 民主化의

---

66) 김학준, 전개논문, p.40.
67) 강민, 전게논문, p.2.

개시단계와 실행단계에서 벗어나 民主化의 확립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 점을 다음에서 부연하기로 한다.

民主化의 개시단계는 6·29 民主化 宣言 직후로 부터 약 1년간의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68] 이 시기에 우선 國民의 여망인 直選大統領制를 골간으로 삼고 權力의 분산이 보장된 憲法이 與·野 合意를 거쳐 國民의 폭넓은 지지속에 채택되고 발표한 것이다. 곧 이어 與·野 合議로 大統領選擧法에 따라 실시된 大統領 直選의 결과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野黨候補들은 선거결과에 승복했으며 1988년 2월 25일 盧泰愚 大統領의 취임으로써 우리 憲政史上 처음으로 平和的인 정부 이양이 現實되었다. 이로써 6·29 民主化 宣言이 제 1 항과 제 2 항은 동시에 實現되었다.

1988년 4월 26일에는 새로운 國會議員 選擧法에 따라 제 13 대 國會議員 選擧가 실시됐다. 그 결과는 與小野大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우리 憲政史上 처음 있는 일이었다. 與小野大의 국회 형세는 社會의 각 부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독자적인 영향력 행사에 보다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했다. 司法府도 예외는 아니어서 젊은 法官들은 司法府 改革運動을 일으켰으며 그것은 보다 더 독립적인 大法院長과 司法府의 탄생에 이바지 했다. 원래 새 憲法은 權力의 분산을 制度化하고 있다. 우선 技能的으로는 3權의 分立이 制度化되어 있어, 行政府의 權限은, 특히 大統領의 權力은 철저히 制限되어 있다. 이어 地域的으로는 地方自治制度를 保障하고 있다.

이렇듯 새 헌법 자체가 權力의 분산을 뒷받침하고 있는데다가 與小野大로 나타난 國會의 형세는 지난날 權威主義 體制를 實質的으로 뒷받침하던 권력기

68) 김학준, 전게논문, p.40.

구의 약화를 가져왔다. 國家構造 次元에서의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政治상황 次元에서의 변화 역시 일어났다. 그것은 野黨의 活性化로 시작되었다.

6·29 民主化 宣言 제7항은 政治活動의 保障을 다짐했는데, 이 宣言을 계기로 野黨의 존립과 활동이 자유로와야 한다는 民主政治의 원칙이 되살아난 것이다. 6·29 民主化 宣言으로 부터 1년이 지난 1988년 6월 말까지 새 行政府와 새 立法府의 出帆이 끝났다. 대체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民主化의 두번째 단계인 民主化의 實行段階로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었다.[69] 정부의 法制處가 편집·발행한 '6·29 宣言과 法制 改革'에 잘 나타나 있듯이 民主主義의 原理와 정신에 입각해 法制를 改革함으로써 民主主義가 實行되고 확립될 수 있는 下部構造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동안 民主化의 實行段階에서 자제와 절제를 모르는 사회 일부 분야에서 상당한 副作用을 일으키고 政治的 不在現狀을 施現하기도 하였으나 91년도 전반기에 地方自治制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基礎議會와 廣域議會 選擧를 무난하게 실시하여 地方自治制를 成功的으로 出帆시킴으로써 民主化의 確立段階에 착실하게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6·29 民主化 宣言과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正統性있는 第6共和國의 出帆을 계기로 우리 社會의 自由化와 民主化의 國家構造의 次元에서나 政治狀況의 次元에서 확실히 進行되어 왔다고 보여진다.

權威主義 體制로부터 民主主義 體制로 轉換하는 過程에서 必然的으로 따르는 社會的 혼란과 갈등이 계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할 만한 일이기는 하나, 國民의 성숙된 民主意識과 政治勢力들 사이의 均衡과 牽制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土地公槪念 등 分配政策의 실시 意志와 民主化 意志에 힘입어 앞으로 우리의 自由民主主義 體制는 더욱 확고히 發展할 것이다.

---

69) 상게논문, p.41.

Ⅳ. 韓國에서의 自由民主主義 實現의 問題點과 方向

우리의 自由民主主義는 西歐의 自由民主主義 基本理念인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향상을 韓國의 國內外的 실정에 맞게 他律的이기 보다는 自律的이고 創造的으로 韓國에 적응시키고 계속 發展시키는 하나의 理論體制라고 하겠다. 이러한 우리의 自由民主主義 定立化 作業은 1948년 건국이래 계속 시도되었으나, 政權擔當者나 國民의 民主主義에 대한 誤解, 黑白 理論的 思考로 인하여 民主主義에 絶對로 필요한 요소인 寬容과 寬大의 不在, 社會 각 구조속에 배어있는 權威主義的 성격의 팽배와 官僚主義의 뿌리깊은 殘存, 對外的으로 南北分斷과 6.25 동란 및 南北間의 理念的 對決의 심화현상 등과 같은 要因들로 인하여 韓國에서의 自由民主主義 定着化는 실패를 거듭했던 것이다.[70]

그러나 1987년 6.25 宣言을 시점으로 이제 韓國의 自由民主主義는 그 基本理念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推進되어 民主化의 確立段階에 접어든 만큼, 차후 政權擔當者나 國民 모두가 民主主義的 생활양식과 民主政治의 理念과 制度에 대하여 어느정도 투철한 信念과 意慾 그리고 誠實性을 갖고 있느냐하는 것이 自由民主主義 理念定立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

70) 전득주, 전게서, pp.281~282

1. 韓國 自由民主主義 實現의 問題點

現代社會와 같은 政治的·社會的·文化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自由民主主義의 價値를 實現하고 政治制度를 유지 운영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近代的 民主政治의 傳統이 전무하여 너무나 對照的이며 異質的인 政治傳統과 풍토 및 社會與件을 가진 韓國에 現代民主主義 理念과 制度를 移殖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71]

解放後 韓國이 비록 韓半島의 반쪽에서나마 獨立政府를 세우고 自由民主主義 憲法을 採擇하였을때 사람들은 그 이상과 완벽에 가까운 自由民主主義 制度가 순조롭게 發展도어 나갈 것으로만 기대하면서 부풀은 自負心과 자랑을 가져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던가?

8.15解放과 獨立의 감격이 미처 사라지기도 전에 韓國의 自由民主主義는 國民의 信望과 期待를 등지고 軌道 이탈을 일삼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韓國의 自由民主主義는 出發부터 궤도 수정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韓國 政治現實은 어떤가? 그 問題點들을 살펴보기로 한다.[72]

가. 南北分斷의 환경적 要因

오늘날 韓半島를 둘러싼 國內의 정세를 살펴 보건대 현재 우리에게 國際的平和와 國內的 安定의 條件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6.25사

71) 한승조, 「한국민주주의와 정치발전」 (서울 : 법문사, 1979), p.129.
72) 상게서 pp.138~142.

변이 일어난지 근 40년이 지났으나 韓國은 北韓共產集團의 음흉하고 집요한 對南浸透工作과 赤化統一을 위한 武力挑發 등으로 인하여 緊張狀態가 지속되고 있다. 과연 여러 사람들이 指摘하여 왔듯이 國際的 緊張緩和와 東西和解의 추세가 진전되고 있을 지라고 그것이 바로 韓半島에 平和를 保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北韓共產集團이 그들이 赤化統一 野慾을 버리지않고 對南工作과 각종 挑發이 계속되고 있는한 韓國은 平和狀態라고 하기 보다는 準戰時狀態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國家의 安全保障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태에서 自由民主主義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自由民主主義가 전혀 不可能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民主政治制度가 여간 확고하게 國民性格과 社會制度 속에 뿌리박지 않고서는 그러한 위기를 감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나. 權力構造的 要因

韓國의 權力構造는 古來로 과도한 中央集中 현상을 보여 왔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傳統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韓國政治에 있어서 權力의 中央集中現象을 "權力 소용돌이의 政治"라는 槪念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73] 사실 한국에서는 제5共和國까지만 하도라도 中央의 行政府權力을 效果的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輿論, 社會集團, 壓力團體, 政黨立法府나 司法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權力萬能의 價値觀이 지배하여 온 것도 부인할

---

73) Gregory Henderson, Korea : The Politics of the Vortex(Cambridge : Harvard. Press, 1967). pp.29~32.

수 없는 사실이다. 權力만 잡으면 社會的 地位나 財産 그리고 名譽는 저절로 생기고 그 나머지 社會價値, 예컨대 健康, 技術·學識·愛情 등도 쉽게 얻어지는 社會與件에서 사람들이 權力이나 地位를 무엇보다 중시하여 權力을 획득하고 유지하는제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는 풍조가 생긴것도 당연한 일이다.

다. 政治文化的 要因

韓國에서는 參與的 政治文化보다는 中央行政權力에 無條件 服從하는 臣民的 政治文化가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여 온 것도 事實이다. 그리고 Ebenstein이나 Lindeman이 주장하는 民主主義的 生活樣式 또는 行態類型[74]이 韓國에 土着化되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 같다. 건국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韓國의 政治過程을 觀察해 볼 때, 少數가 多數의 決議에 승복하지 않았던 한편, 多數가 少數의 意思를 존중함이 없이 一方的으로 억누르려고하는 行動을 자주보아 왔다. 이런 環境에서 討議와 妥協에 의한 民主政治制度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리고 政治的 對決의 승패는 결국 힘의 강약에 의하여 좌우되고 만다. 이런 상황에서는 政府와 與黨은 權力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民意에 호소하기 보다는 政權의 힘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대하여 野黨은 공정한 選擧方法이나 議會討議의 方法보다는 오히려 극한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경향을 보여 왔다.

---

74) William Ebenstein과 Edward C. Lindeman이 주장한 자세한 내용은 한승조, 전게서, pp.131~133.

라. 經濟的 要因

오늘날 韓國은 급속한 經濟成長過程에 있으며 60년대 이래 10%를 상회하는 年平均 經濟成長率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一般國民이 모두 經濟的 繁榮과 安定을 누리게 된 것은 아니며, 反對로 급속한 經濟成長으로 인하여 社會不安과 緊張이 高潮되고 있는 면도 간과할 수 없다. 經濟成長이 너무나 급속하게 진전될 때 社會經濟制度와 기능상의 부조리가 더욱 크게 露呈되며 또 생산과 소득의 분배를 둘러싸고 집단간의 또 생산과 소득의 분배를 둘러싸고 집단간의 반목과 알력이 尖銳化됨으로써 民主政治의 安定性을 위협한다는 學說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75]

韓國도 60년대 이래의 급속한 經濟成長이 국민의 物質的인 生活水準을 급격하게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빈부의 격차, 농촌과 도시 내지는 政府와 國民간의 乖離感을 擴大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民主政治의 주축이 되는 중간계층이 더욱 불안전하고 위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마. 社會構造的·社會心理的 要因

韓國은 現在 前近代的 社會構造 및 社會文化로부터 近代的 行態 文化構造類型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하겠다. 問題는 近代的 意識構造나 행위양식보다는 前近代的 意識構造나 행위양식이 現實的으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데 있다. 또 韓國人의 人權構造, 韓國性格에 관하여 여러가지 意見이 있

---

75) Harry Ecketein, Theory of Stable Democracy in Frank Lindenfeld, Rrader in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 Funk & Wapnalls, 1968), p.127.

지만 60~70년대의 경우 韓國人의 國民性이 본래 民主的이라고하거나 民主統治制度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었다.[76] 하물며 民主主義를 단순한 政治制度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生活方法, 行態類型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77]

물론 韓國人이 國民性이나 意識構造도 80년대부터 급속히 또는 서서히 前近代的 權威主義類型으로 부터 또는 近代的 民主主義 類型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民主主義的 특징인 開放性·進取的·融通性·寬容性·自發性·多元的 價値觀·平等主義를 취득하고 傳統的인 한국적 人性構造의 封鎖性·保守性·頑固性·排他性·强迫性·權力至上의 一元的 價値觀·權威意識을 완전히 탈피하게 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 같다.[78]

結論的으로 말한다면 實際的 韓國 政治의 現實的 與件은 西歐 自由民主主義의 理念과 制度가 成功的으로 移植되어 개화 결실할 수 있는 모든 環境과 條件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韓國이 民主政治의 可能條件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民主政治가 우리에게 아직 시기상조임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問題는 한국의 國民이나 政治 지도자가 民主主義的 生活樣式이나 民主政治의 理念과 制度에 대하여 어느정도 투철한 信念과 意慾 그리고 誠實性을 갖고 있느냐하는 것이다.

---

76) 윤태림, 「의식구조로 본 한국인」 (현암사 1970) :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성격」 (서울 : 민주사, 1965)

77) Zervedei Barbu는 민주주의를 언제나 진보와 번영의 전망이 보이는 시대에 생겨난 a particular frame of mind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Zervedei Barbu, Democracy and Dictatorship, Their Psychology and Patterns of Life(New York : Grove Press, 1956), pp.12~23.

78) 한승조, 전게서, pp.141~142.

2. 韓國 自由民主主義 實現의 方向

우리의 自由民主主義는 韓國이라는 特殊性과 世界的 普遍性의 合理的인 통합 내지 조화를 그 근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즉 우리의 自由民主主義는 世界的으로 普遍性을 지닌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韓國이라는 時·空間上의 특수한 터전에 辨證法的으로 實現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표1에서 처럼[79] 1983년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民主政治姿勢에 관한 설문조사 內容에서 보더라도 自由民主主義를 선호하는 경향이 支配的이다.

학생 연령별로 본 민주정치자세

백분율(%)

민주자세 / 학생별/응답	자유민주주의		엘리트민주주의		다원민주주의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국민학생	76	24	20	80	42	58
중학생	73	27	39	61	16	84
대학생	93	7	44	56	82	18

표1의 통계자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국민은 정부에 반대되는 생각을 발표할 수 있다." 엘리트주의는 "정치는 대중에 의해서 보다도 경험과 식견을 지닌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어져야 한다." 다원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정당끼리 경쟁할 때 가장 큰 기능을 발휘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自由民主主義는 모든 國民이 가꾸고 發展시켜가야 할 政治的

---

79) 조정원 및 현종민, "한국 대학생의 현실 참여에 관한 연구",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정치학회, 1987), p.170.

이데올로기이다.[80] 그러면 우리의 自由民主主義가 앞으로 어떠한 內容을 담고 어떠한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필자는 크게 理論的 側面과 政治的 側面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가. 理論的 側面

우리가 指向하고 있는 自由民主主義는 대체로 民族主義, 民主主義, 民福主義 이상 3가지 理論的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하리하고 보는 견해가 있다.[81] 필자도 이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논리를 펴고자 한다.

(1) 民族主義的 要素

우리 民族은 巨視的으로 볼 때 民族共同體의 獨自性과 一體感을 확보·유지하면서 單一文化를 形成·發展시켜 왔다. 그러면서도 우리 歷史의 한쪽에는 否定的 事大主義로 인하여 강대국간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했거나, 일제에 의해 합병되었던 36년간의 受難의 歷史도 가지고 있다. 또한 수많은 獨立運動家들이 民族의 獨立을 위해서 안팎으로 鬪爭을 해왔으나, 불행하게도 民族解放은 우리 民族 스스로의 힘으로 爭取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소련이 바로 이 民族의 解放者였다.

더우기 미·소 냉전의 부산물로 韓半島가 南과 北으로 분단되기까지 하였으니 民族의 受難은 오늘날까지 持續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周邊政勢를 보더라도 미·소·중·일 등 주변 4강들은 韓民族에 유리한 현상타파 정책보다는 그들의 韓國民族主義의 窮極的 목표인 韓民族의 統一은 주변 강대국의

80) 전득주, 전게서, p.282
81) 상게서, p.285.

영향력에 論議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解決해야할 커다란 과제이다. 이상과 같은 周邊政勢의 전개는 韓國으로 하여금 對外的 自主獨立의 확보와 對內的 民主化 및 民族的 統一이라는 3중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民族과 國家가 처한 諸難關을 克服하고 民族의 에너지를 총집결하여 民族中興 및 統一祖國의 미래를 구현해야 한다는 民族的 지상과제는 곧 韓國 民族主義의 理念이요, 完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指向하는 民族主義는 어떠한 내용으로 짜여져야 할 것인가?

첫째, 民族共同體를 構成하는 모든 國民들은 우선 政治·思想的으로 自主的이어야 하고 經濟的으로 自立하여 國防에서 自衛하고, 民族文化의 創造的 繼承·發展을 통하여 民族共同體의 實現的 터전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民族主義는 對外的으로 民族自決의 原則과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외국과 同伴者的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바로 이런 民族主義만이 國際平和와 安定에 기여할 것이다. 세째, 民族主義는 民族統一의 現實을 위한 具體的인 方案으로서 南北聯合이라는 고도체계[82]를 통해 自主·平和·民主原則에 따라 韓民族共同體의 回復·發展을 통한 統一方案의 實現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직된 理念이나 思想보다 民族이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韓半島에서의 민족간 갈등을 極小化시키고 남북한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方向으로 韓國民族主義를 계속 發展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콘(Hans Kohn)이 지적한 바 "民族主義란 개개인의 최고의 충성심을

82) 1989년 9월 11일 盧대통령의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제시된 것으로, 南北聯合은 그 자체가 통일된 국가의 최종 형태가 아니라 남과 북이 공존 공영과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이다. 정부의 공식설명으로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인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의미한다.

民族과 國家에 바쳐야 한다."는 心理狀態이며[83] 民族國家야 말로 오늘날 이상적인 政治組織體인 동시에 문화창조와 經濟福祉의 源泉이다.[84]라는 견해를 계속 지지해야 하는 것이다.

(2) 民主主義的 要素

지금까지의 韓國 現代政治史를 自由民主主義 理念의 側面에서 종합평가할 때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였다. 8.15해방 이후의 혼란과 李承晩 大統領의 獨裁政治는 政治에 대한 國民의 不信과 회의를 조장시켰을 뿐이며, 제3, 제4共和國의 朴正熙 大統領은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슬로건으로 總力安保를 통한 民族生存權의 確保와 經濟的 成長에만 중점을 두었고, 제5共和國 역시 經濟的安定에만 과대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政治經驗은 國民들로 하여금 自由民主主義를 지향하고 있는 韓國政治의 理念과 體制에 대해 確信과 自負心을 약화시켰으며 나아가 北韓과의 現實的 對決을 理念的으로 극복할 수 있는 國民的 自信感을 가져다주지 못했었다. 또한 이제까지의 韓國 政治 經驗에서 볼 때 더욱 절실한 것은 自由와 平等理念에 대한 觀念的 이해를 지양하고 實際生活에서의 具體的 適用이 이루어져야 한다. 自由란 人間의 尊嚴性을 지니는 기초적인 理念으로 隷屬과 統制로부터 解放되는 상태이다. 또한 平等과 社會紐帶라는 한계내에서 自我實現의 可能性을 最大限으로 신장시킴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유로운 自我實現은 이를 위한 個人의 經濟的, 政治的, 社會的, 文化的 可能性이 實質的으로 확보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83) Hans Kohn, Nationalism : It's Meaning and History, 차기벽譯, 「民主主義의 本質과 歷史」 (서울 : 박영사, 1961), p.17.

84) Carton. J. H. Hayes, Nationalism-a Religion, 차기벽譯, 「민족주의」 (서울 : 사상계사, 1961), pp.17~19 및 Eugene Kamenka, Nationalism, The Nature and Evolution of an Idea(London, 1973) 참조

유념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抽象的이고 觀念的인 自由를 要求하기 보다 實質的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社會, 經濟, 文化, 經濟的 自由를 要求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認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實質的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사회 제반구조의 自由化는 平等의 바탕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合理的 事故와 責任의 倫理를 바탕으로 自由와 平等을 조화시키고, 主人意識을 바탕으로 相互 合議와 合政의 理論[85]을 동시에 추구할 때 우리는 궁국적 목표인 人間尊嚴性의 極大化를 이룰 수 있고 보다 참된 民主社會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3) 民福主義的 要素

民福主義는 한마디로 나도 행복하게 살고 남도 행복하게 살게 하는 주의이다. 이러한 民福主義의 實現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社會紐帶意識을 가져야 할 것이다. 社會紐帶意識은 基本的으로 共同體에 대한 自意識을 바탕으로 그 社會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살고 남도살게 해 주는 인간'에 동의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은 生存問題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고, 그결과 社會的 道德과 倫理는 땅에 떨어졌다. 또한 1960년대부터 시작된 經濟發展計劃으로 물량적인 팽창은 두드러졌으나 人間疏外現像과 精神的 價値의 평가절하 현상이 큰 문제로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해지는 현상을 지나 1970년대부터 相對的 貧困者의 수가 증대되면서 社會, 經濟的 제반 병폐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社會

85) 合致理論이란 진실개념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 합의개념과는 다르다. 즉 진실과 진실이 합치될때 합치이론이 성립되나 합의이론은 토론자의 합의에 의해 진실이든 비진실 상관없이 합의내용에 따라 진실을 결정하는 이론이다. 때문에 합의이론은 多數決原則에 의해 수행된다.

的인 유대의식이나 共同體의식을 갖게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다. 심리학자 피아제('ean Piaget)는 인간심성의 성숙단계를 權威와 사랑에 依存하는 단계, 둘째, 집단적 우의와 유대의식에 구속되는 단계, 셋째, 理性과 原則에 依存하는 단계 등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86] 이런 분류에 家父長的 保護와 사랑에 依存하고 생활하는 인간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小集團的우의와 유대는 강하나 大集團(社會·國家)적 우의와 유대는 약하다고 하겠다.

社會 構成員들이 違和感을 갖지 않고 紐帶意識을 가질 수 있으려면 自由와 平等이 均衡을 이룬 가운데 부정, 비리, 부패가 社會에서 척결되어야 하며, 均衡分配政策의 실시로 社會主義가 實現되어야 한다. 自由民主主義의 주요구성요소로서 民族主義的 要素를 들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社會福祉 理念이 實質的으로 具現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社會福祉理念은 共產主義가 主張하는 '완전한 平等分配'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個人의 潛在的 能力이 최대한으로 개발되고 實現될 수 있도록 機會均等을 통한 社會正義 實現'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可及的 社會的 價値의 多元的 균등분배를 위한 社會保障및 社會福祉制度를 效率的으로 구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內容의 社會福祉政策이 계속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87] 첫째, 個人的으로 非自發的인 原因(사망, 불구, 질병, 노화, 실업 등)으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保護하기 위한 社會保障制度의 確立, 둘째, 分配的 正義와 분배의 형평을 志向하는 분배구조의 개선, 셋째, 社會·경제·政治·교육·文化的 機會의 不平等 구조의 개선 네째,

86) 국민윤리학회편, 「국민윤리 Ⅰ·Ⅱ」 (서울 : 형설출판사, 1983), p.260.
87) 임희섭, "복지사회의 한국적 전개", 「국가발전을 위한 지도자 간담회 보고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環境汚染防止와 自然保護를 통한 일반생활조건의 향상 이러한 民福主義에 依據한 社會福祉行政의 執行은 對北韓 관계와 統一政策의 수행에 있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環境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福祉政策을 통한 民福主義의 조성은 안으로는 國民的 和合의 實質的 基盤을 마련하는 것이며, 밖으로는 民族의 平和統一을 앞당기는 有·無形的 國力의 培養과 直結될 것이다.

나. 政治的 側面

여기에서는 여러 學者들의 民主主義에 관한 經驗的인 諸理論에 비추어 한국의 自由民主主義가 어떠한 方向에서 改善되고 정립해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政治의 制度化

解放以後 自由民主主義가 이 땅에 이식된지 40여년이 흘러간 오늘날에 있어서 政府의 平和的 交替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8년 第5共和國에서 第6共和國으로 넘어갈 때 처음으로 平和的 政權交替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리의 憲政史에 있으서 참으로 빛나는 歷史로 장식되겠으나, 차후 平和的인 政權交替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大衆에 基盤을 둔 건전한 政黨制度가 實現되어야 할 것이다. 노이만 교수는 政黨의 機能과 役割에 대하여 大衆과 執權者間의 輿論의 形成과 組織化, 民衆에 대한 政治社會化 教育, 政府의 組織, 政治 指導者의 充員 등을 열거하고 있다.[88] 이를 基準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

88) Sigmand Neuman, Modern Political Parties(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1956), p. 387.

政黨政治가 國民들에 의해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당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참여의 도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헌팅톤은 組織과 節次가 價値와 安定을 획득해가는 과정인 制度化의 수준을 適應性, 複合性, 自律性,凝集性 등 네가지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고 있다. 이 네가지 基準을 韓國의 정당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執權黨이 執權者의 거취에 따라 그의 권력에 추종하거나 그 失政에 責任을 지고 물러났다는 점에서 適應性을 결여하고 있다.

둘째, 우리의 정당은 구조면에서 분화된 形式을 갖추고 있으나 기능면에서는 강력한 中央集權化와 寡頭化 현상을 露呈시킴으로써 複合性도 뒤떨어지고 있다. 셋째, 自律性에 있어서는 執權者나 당 首腦部를 중심으로 한 인물과 권력에 종속되는 脆弱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네째, 凝集性에 있어서도 體內的 國民 모두의 意見을 포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89] 이상의 네가지 기준으로 평가할때 한국 정당의 制度化 水準은 아직 微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韓國 政治의 發展過程을 보면 分派主義, 小英雄主義로 인한 分黨, 解散 등의 惡循環으로 그 分裂的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정당들은 아직 대중에 基盤을 두지 못하고 있으며 분출되는 社會의 諸慾求를 媒介하는 通路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自由民主主義가 제대로 成熟하려면 政黨이 먼저 制度化되어야 한다.

(2) 權力의 正當性

3.8선을 사이에 두고 理念과 體制가 相異한 南·北韓이 서로 對峙하고 있는

89) 윤형섭 "한국정치과정", 김운태편, 「한국정치론」 (서울 : 박영사, 1983), pp.383~385.

韓國的 상황에서 權力의 正當性과 政治安定(또는 安保)은 대단히 중요하다. 政治安定을 위해서 正當性이 없는 獨裁的·權威的인 政權을 坐視할 수 없고, 권력의 正當性을 위해서 政治安定을 해칠 수는 없다. 이러한 두 要因이 서로 調和와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 正當性은 旣存 政治制度가 다소 결점이 있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制度가 어떤 制度보다 훨씬 좋고, 따라서 그 制度는 國民의 服從을 要求할 수도 있다는 信念을 말한다. 즉 그런 信念은 合憲的으로 권좌에 오른 指導者가 복종을 요구할 때 다른 어떤 集團이 그 要求를 自發的으로 들어 줄 수 있다는 信念이다. 民主的인 政權은 그런 信念을 보다 많은 대중속에서 찾고자 한다.[90]

어느 사회에서건, 어떤 정부가 100% 正當性을 가질수는 없다. 유권자 대다수가 정권의 正當性을 信賴하고 있을 때라도 불안정할 수가 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軍部를 직접적으로 統制할 수 있는 군부지도자 측에서 보는 정당성에 대한 신념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민 대다수가 현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信賴를 가지고 있다면 군부지도자가 함부로 정권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91]

이러한 權力의 正當性이란 觀點에서 解放後 근 45년의 政治史를 반추해 볼 때 韓國의 政治 指導者들은 무엇보다도 그 權威의 正當性이 없다는 非難을 받고 있다. 政治指導者 및 추종세력들의 否定과 非理가 長期 執權欲에 비롯된 불신풍조가 全般的으로 기성권위의 正當性을 쇠퇴시켰다고 하는 점이다. 물론 6.29宣言에 따라 평화적인 政權交替와 大統領 民選에 의한 權威에 正當性에

90) Juan, J. Linz, Crisis, Breakdown & Reequailibration, in Juan J. Linz and Alferd Stepan, ed.,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Baltimoer and London :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7), p.16.

91) Ibid., p.17.

대한 회복의 실마리를 열었다는데 그 意味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民主政治가 제대로 잘되려면 指導者 및 政權의 正當性이 있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政治指導者는 公正하며, 道德的으로 善良하며 國民들의 利益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信任을 國民으로부터 얻을 필요가 있다. 또 그들은 私心을 버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國民들에게 良心과 人格과 이에 믿고 따르게 되면 社會는 밝은 미래를 眺望하게 된다.

(3) 政治敎育의 實現性

政治理念 敎育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政治理念의 具現을 위한 수단내지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政治理念으로 삼고 敎育을 통해 이러한 思想을 주입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좋은 예라 하겠다. 어떠한 국가이든간에 社會共同體의 統合, 正體性의 확보와 유대를 위해 政治理念을 앞세우고 構成員들에게 이를 利害와 習得을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敎育을 동원하게 된다. 이러한 側面에서 해방 이후 한국의 政治理念敎育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敎育이 파행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文盲退治, 6년간의 義務敎育實施, 6.25동란, 南北間 理念對立의 深化, 國家財政의 궁핍 및 여러번의 政治的 事變과 平和的 政權交替의 不在등으로 인하여 야기된 우리의 政治理念敎育의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92]

첫째, 6.25동란 이후 우리는 反共을 國是로 해왔으므로 反共만이 韓國의 生存을 보장하고 北韓의 위협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미지 形成은 開放的 이데올로기의 개발보다는 오히려 폐쇄적 이데올로기의 강화만을 우리에게 강요

92) 전득주, 전게서, pp.291~293.

해 왔다. 원래 反共이라는 것은 자기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때 그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나 자기자신의 이데올로기도 없이 무조건적인 침투로 共產主義만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消極的·防禦的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自由民主主義 敎育은 歐美諸國과 韓國의 歷史와 傳統의 特異性 및 社會政治 여건들의 相異함을 무시하고 歐美의 諸般理論을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따라서 民主主義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歐美人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너무나 樂觀的·理念的 자세를 젊은이들에게 심어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共產主義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의 제한적 실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共產主義의 浸透에 대한 免疫性을 弱化시켰을 뿐만 아니라 好奇心마저 誘發시키게 되어었다. 따라서 오늘 東歐社會主義體制의 붕괴와 소련체제의 해체로 共產主義가 종말을 고한 시점에서도 국내 일부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를 社會主義 革命에 의해 變革시키겠다는 것도 바로 잘못된 敎育의 한 斷面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政治理念敎育의 기능은 上記의 脆弱點을 보완하고 우리의 自由民主主義槪念을 확고히 定立해서 지금부터라도 보다 合理的이고 체계적인 理念敎育으로 건전하고 비판적인 自由民主市民 양성에 기여토록 해야할 것이다.

V. 結　　論

우리는 西歐 自由民主主義가 오랜 歷史와 經驗을 갖고 發展해 왔다는 사실을 검토하였다. 즉 經濟的 自由主義와 政治的 民主主義가 結合하여 自由民主主義로 성숙하기까지는 資本主義 經濟體制라는 터전위에서 自由와 平等 그리고 寬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思想的 基盤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自由民主主義는 개인의 잠재력과 道德的 人格을 自由롭게 발휘케 하며 成長 育成케 하는 장치인만큼 그 자체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바커(E. Barker)는 "獨裁政治는 그의 存在를 業績에 위해서 正當化하여야만 하지만, 民主主義는 그의 존속 그 자체가 중요한 業績이 된다."[93]라고 하였다.

그러나 西歐의 自由民主主義는 그 歷史的 展開過程을 통하여 自由와 平等이라는 兩者의 調和 關係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自由와 平等 중 前者의 요구는 충족시켰으나, 後者의 요구는 아직도 기대수준에 미흡한 형편이다. 따라서 최근에 參與民主主義의 실천을 통한 平等 欲求가 점차 실현되고 있어 진정한 自由民主主義 방향으로 옮아가고 있다. 문제는 西歐 自由民主主義 社會가 두 개의 極大化에 대한 論理, 개개인의 效用과 만족을 극대화 시킨다는 論理와 개인의 힘을 極大化 시킨다는 論理를 正當化시키는데 있어서 근본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있다.

---

93) Ermest Barker, Principles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Oxford Univ. press, 1951), p.137.

C. B. 맥퍼슨은 특히 效用 極大化의 主張體系는 資本主義 市場社會에서의 힘의 轉移와 密接하게 관련되는 것을 自由民主主義 理論에 根本的 限界를 부여하는 要素라고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西歐社會는 技術革命이 제공하는 현재의 非民主的이며 非人道主義的 상황으로 부터 벗어나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效用의 無限한 欲求者' '效用의 消費者'로 부터 '자신의 人間的 힘의 發揮者'로의 人間觀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94] 韓國의 自由民主主義 理念에 해방후 國民國家의 건설과 더불어 國家理念으로 채택되었다. 다시 말해서 西歐의 自由民主主義 理念에 표방되고 憲法에 의해 制度化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大韓民國이 수립하던 시기부터이다. 國民國家의 수립과 더불어 형성된 國家理念으로서의 自由民主主義가 權威主義的 統治를 강화하는 統治理念과 間隙이 커짐으로써 國家理念과 政治現實과의 乖離는 심화되어 왔다.

解放後 自由民主主義를 國家理念으로 標榜한 自由黨政權은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기 위해 反共을 해야 한다는 論理를 固著시켜 反共을 위해 自由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矛盾을 露呈하였으며 統治理念을 正當化시킬 수 있는 物的·强制力的 基盤을 구축하는데에는 실패하였다. 5·16이후의 軍事政治에 統治理念으로서의 反共理念은 성장 위주의 統治政策으로 인한 產業化의 成功에 힘입어 自由民主主義의 理念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物的·强制力的 基盤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軍事政權이 權威主義體制를 正當化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온 產業化는 社會內에 產業勤勞者를 주축으로 하는 中產層을 확산시켰으며 社會經濟的

94) C.B 맥퍼슨의 자유민주주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은 김규일역"자유민주주의 발전과정" (양영각, 1984)을 참조,

地位向上을 경험한 中產層은 權威主義 統治에 저항하면서 政治參與를 要求하게 되었다. 즉 反共과 近代化라는 軍事 政權의 統治理念은 그간 성장한 中產層의 要求에 직면하여 오히려 政治的 正當性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게된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요시된 經濟的 民主主義는 社會의 分配的 定義에 대한 要求를 증대시킴으로써 權威主義的 統治를 正當化시키는 統治理念에 대한 抵抗을 더욱 심화시켰다. 80년대 들어서면서 政府는 安定을 중심으로 政策을 樹立하고 運營하였다.

그러나 政府는 國民의 政治的·經濟的 平等에 대한 慾求를 제대로 受容하지 못하여 國民的 不滿은 高潮되고 政治的 混亂은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抵抗市民들의 民主化 및 社會 變革論理가 대두하였고 이에 편승하여 소수 左傾 急進勢力權에서는 暴力을 앞세운 대규모 시위로 社會不安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런 와중에 1987년 6·29宣言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韓國의 政治·經濟·社會 그리고 文化등 제반 社會構造에 대한 民主化의 일대 改革措置였으며, 후에 平和的인 政治交替로까지 이어졌고 6·29宣言에 의한 政治的 約束을 착실하게 이행하여 이제 안정된 民主主義 定着期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韓國의 自由民主主義는 짧은 歷史를 가졌으면서도 많은 逆境을 克服하고 숱한 挑戰을 받아 왔다. 돌이켜 보건대 60, 70년대의 反共 이데올로기는 時代가 要請한 필 수 요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政權擔當者들이 '反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政權維持 차원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反共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反共이 政治的 誤謬로 말미암아 악용되었다는 데에 本質的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아무튼 우리는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主旨하고 있고

어느 한 계급의 支配 받은 것을 排除하고 있으며 모든 계층이 타협과 양보로 공존 공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더우기 우리의 分斷現實에서 일부 急進勢力의 주장이 北韓의 南韓鮮革命戰略에 이용되거나 同調의 소지가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理念을 추구하는 단체의 세력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련의 볼세비키 혁명이 맑시즘으로 意識化된 소수의 인텔리겐챠에 의해 주도되었고 독일의 나찌즘이 겨우 수백명에 불과한 國家 社會主義者들에서 시작하였으며"[95] 소수의 職業革命家들로 패망한 월남의 예에서와 같이 革命은 意識化된 소수의 職業革命家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自由民主主義는 平等化된 自由와 理念體系로서 사회속의 개인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規律하는 반면, 急進的 變革論理에 대해서 서는 거부한다. 急進的 變革論理는 漸進的 社會改革을 거부하고 적과 동지의 敎條的 圖式에 집착할 뿐 아니라 폭력에 호소하기 일쑤이다.

평등의 기치를 높이 세웠던 共產主義體制가 끝내 未曾有의 全體主義的 官僚獨裁로 전락한 예는 極端論理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웅변적으로 일깨워 준 것이다. 自由民主主義는 敎條的 내용을 가진 정교한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그것은 다만 최소한 政治的·經濟的·社會文化的 合議을 갖고 있을 뿐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政治的 自由, 混合經濟, 產業의 效率性, 福祉立法의 內實化, 敎育에 있어서의 機會均等이며 무엇보다 生活世界의 多元化가 그 特徵的 모습이다.

따라서 그것은 열린 사회를 指向하며 닫힌 사회를 拒否한다. 한편 우리는 21세기를 앞든 현 시점에서 自由를 향한 인간의 몸부림을 너무도 선연하게

95) 이무웅 「이데올로기와 민중혁명」, (서울 : 고려원, 1988)

목격하고 있다. 고르바쵸프나 옐친이 가속화시키고 있는 소련의 개혁과 개방에서 독일의 統一과 共産主義國家들의 民主社會主義로의 급속한 변신에서 우리는 自由와 民主를 열망하는 인간의 참모습을 접하고 있다.

共産圈에서 야기되고 있는 이같은 변화를 '이데올로기 終焉'은 물론 '歷史의 終焉'으로 까지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다.[96] 이데올로기의 종언론이 대두된 것은 이미 오래지만[97] 종언론자들이 아무리 이데올로기 종언을 선언하더라도 결코 모든 이데올로기가 사리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共産主義와 같은 닫혀진 이데올로기 만이 종언될 것이며 自由民主主義나 民主主義 같은 열려진 이데올로기는 건전한 발전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共産主義 體制가 붕괴되고 이데올로기로서의 존립가치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金日成集團은 그 化石化된 主體思想에 집착하면서 인생관의 제1명제로 '수령에 충성을 다할 것'과 '革命에 몸바침을 행복으로 생각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볼 때, 世界史의 명제인 自由의 進步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이러한 평가와 함께 우리의 자화상도 살펴 보아야 한다. 우리가 건국 40여년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 6·29 民主化

---

96) 美 國務省정책기획실 부실장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88년 여름 계간지 내셔널 인터리스트에 실은 글에서 최근 10년의 세계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관련 "냉전의 종식이나 전후 한시대의 마감정도가 아니라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인류의 최종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에서 역사의 끝이 도래했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글이 1989년 9월 5일자 서울신문에 실려있다.

97) 다니엘 벨이 '이데올로기 종언」을 저술한 것은 1959년의 일이지만 1950년 서베를린에서 열렸던 서방 지식인들의 "문화자유회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선언했었다.

宣言의 정신에 따라 출범한 6共和國 以後 自由民主主義에 어울리는 實名의 政治를 成功的으로 펴나가기 위해서는 政權擔當者는 물론 國民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 政治過程에서 作用하는 具體的 프로그램으로서의 民主主義는 무엇보다도 그 社會가 안고 있는 社會的 龜裂과 葛藤關係를 合理的 政治課程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그 社會에 作用하는 原心的 分裂力을 저지하고 統合指向的 秩序를 保存해 가는데 그 주요한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가장 核心的 目標가 되어야 할 것도 바로 民主主義의 이러한 기능이라 할 것이며 앞으로 韓國政治過程에서 이러한 기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일이다. 韓國政治에 있어서 社會的 방식으로 대응해온 방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自由民主主義는 理解와 對立 葛藤 矛盾 등을 어떻게 合理的으로 調停 解消하느냐에 관건이 있으며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對話와 協議 多數決과 少數意見의 존중, 그리고 끝없는 寬容의 정신과 실현의 자세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自由民主主義라는 묘약은 그를 이용하는 자의 능력에 따라 크게도 혹은 작게도 표현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국내 서적 및 논문

◦ 국민윤리학회 편, 「국민윤리 Ⅰ.Ⅱ」, 서울 : 형설출판사, 1983.

◦ 김규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 서울 : 양영각, 1984.

◦ 노명식편, 「자유주의」, 서울 : 종로서적, 1983.

◦ 전득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비교」, 서울 : 행림출판사, 1991.

◦ 허재일역, 「현대 비교 정치 이데올로기」, 서울 : 현학서관, 1981

◦ 송대성, 「좌경 이데올로기－그 주장과 현장」, 서울 : 명설출판사, 1987.

◦ 윤태림, 「의식 구조로 본 한국인」, 서울 : 현암사, 1970.

◦ 이극찬 편, 「민주주의」, 서울 : 종로서적, 1985.

◦ 이무웅, 「이데올로기와 민중혁명」, 서울 : 고려원, 1988.

◦ 이범준 · 신승권, 「정치학」, 서울 : 박영사, 1986.

◦ 이상구, 「민주정치론」, 서울 : 대왕사, 1984.

◦ 이상두, 「현대 정치와 정치사상」, 서울 : 태양사, 1985.

◦ 이종은, 「민주주의와 혁명」, 서울 : 영학출판사, 1989.

◦ 정경연구소, 「좌경 — 그 실상과 음영」 서울 : 1986.

◦ 정용석, 「자유 민주주의」, 서울 : 에코노미아, 1989.

◦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성격」, 서울 : 민조사, 1965

◦ 한상진, 「한국 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8.

◦ 한승조,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서울 : 법문사, 1979.

◦ 한국 혁명 재판사 편찬위원회, 「한국 혁명재판사」, 제 1 집, 1960.

◦ 현대사회연구소, 「2000년대를 향한 한국인상」, 서울 : 1982

◦ 강민, "제 6 공화국 민주화의 구조적 한계와 정치 상황의 논리", 한국정치학회 특별 심포지움 발표논문, 1989년 6월 9일

◦ 김대환, "한국의 정치사회의 현실과 그 발전과제" 「국가발전을 위한 지도자 간담회 보고서」,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1982.

◦ 김학준, "한국 민주화 어디까지 왔나" 「안전보장」, 1989년 8월호

◦ 노재봉, "한국에 있어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주주의" "한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한국정치와 이데올로기" 「사상과 실천」, 서울 : 녹두, 1985.

◦ 박광주, "한국의 국가 이념과 현실" 「한국 정치학 회보」 제 22 집 2회, 한국 정치학회, 1988.

◦ 박상섭, "한국 정치와 자유 민주주의", 「현대 한국 정치와 국가」 서울 : 법문사, 1987.

◦ 양승태, "민주화와 민주화의 修辭" 「한국 정치학회 특별심포지움 발표논문, 1989년 6월 9일

◦ 윤형섭, "한국 정치과정" 김운태편, 「한국 정치론」, 서울 : 박영사, 1983.

◦ 이홍구,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한국정치문화",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법문사, 1985.

◦ 임희섭, "복지사회의 한국적 전개", 「국가 발전을 위한 지도자 간담회 보고서」,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2.

◦ 최장집, "총론 : 해방 40년의국가 · 계급구조 · 정치변화에 대한 서설", 「한국현대사」, 서울 : 열음사, 1985.

◈ 2. 외국서적

◦ Arblaster, Anthony.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Liberalism(Oxford : Basil Blackwell, 1984)

◦ Hayes, Carton. J. H. Nationalism－A Religion, 차기벽역, 「민족주의」, 서울 : 사상계사, 1961

◦ Macherson, C. B. Democratic Theory(Oxford : clarendon press, 1973)

◦ Labrousse, Elisabeth. Religious Toleration in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 ed. by philip p. Wiene et als(New York : Charles Scriners, 1978), Vol.4

◦ Barker, Ernst. Reflections on Government(London : Oxford Univ. press, 1942)

◦ Forsthoff, Ernst. Rechtsstaat im Wandel(Munchen, 1975)

◦ Sabine, G. H. The Two Democratic Traditions,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61, (Octover, 1952)

◦ Henderson, Gregory. Korea:politics of the Vortex(cambridge:Harvard Univ press, 1967

◦ Kohn, Hans. Nationalism:It's meaning and History, 차기벽역, "민족주의의 본질과 역사", 서울 : 박영사 1961

◦ Baker, John. Arguing for Equality(London : Verso 1987)

◦ Mill, on Liverty, J. S. chapter 2.

◦ Baradat, Leon P. political Ideologies : Their Origins and Impact, 2nd ed (Englan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984)

° Neuman, Sigmand. Modern political parties(Chicago : Univ. of chicago, 1956)

° Han, Seung Joo. The Failure of Liberal Democracy in Korea(Berkel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74)

° Barbu, Zervedei. Democracy and Dictat orship, Their Psychology and patterns of Life(New York : Groue press, 1956)

ABSTRACT

An Investigation Concerning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Liberal Democracy in Republic of Korea.

KIM, Kyong-Sik
Majored in Gener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Western Liberal Democracy, which is an ideology system consisting of essential elements such as liberty, equality, forbearance and principle of majority rule. Many of the third developing nations, postwar, tried to introduce Western Liberal Democracy. Unfortunately, it was hard to become fixed Democracy of Western Style and the market economy system at the same time. Though Republic of Korea likewise the third developing nations introduced Western Liberal Democracy as a national ideology after liberation, people in power overemphasised logic of anti-Communism in order for them to protect Liberal Democracy. The crippled operation resulted from it.

Keeping in mind those kinds of circumstances, observing direction which Liberal Democracy should go forth in future and trace introduced and develo-

ped Liberal Democracy in Republic of Korea is meaningful thing in becoming fixed Liberal Democracy of Korean Style.

I

Liberal Democracy starting from classical Liberal Democracy in 17th century and 18th century is a kind of system which is able to demonstrate grow, and nurture potential energy and moral individuality of each person, Therefore, E. Baker said that "Dictatorship should justify its existence by achievements, however, its continued existence itself become important contribution to a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Liberal Democracy through the process of historic has been kept developing Democracy of protection, Democracy of extension, and Democracy of equilibrium. In near future, it should be converted into Democracy of participation. However, a question is the way how to overcome the upper most limit which theory of Liberal Democracy contains in itself. C. B. Macpherson emphasises change of view of man is indispensable to surmounting those problems caused by between the greatest of utility and the greatest of power which Western Liberal Democracy has.

II

Even though Western Liberal Democracy was accepted as national ideology of Republic of Korea after liberation, in those days, all sorts of given condition was incapable in order to keep applying and developing Western Li-

beral Democracy under the political climate involving phenomenon of authorianism. In particular, under the tension of the cold war between the two camps of the East and hte West since The Second Wold War, the Korean Peninsula being cut in two had no choice but to accept accute political system confronted with each other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Republic of Korea, anti-Communism ideology took the initiative, and people grasping power jumped their thought into logic which can damage Liberal Democracy for holding anti-Communism. Namely, the regime of Lee, Seung Man Justified political situation of authorianism by holding anti-Communism as a ruling idea, and the regime of Park, Jeong Hee taken the leadership by 5·16 Military Revolution presented national security and the modernization of fatherland as ideology of moral obligation to justify for itself, denying April 19th Student Revolution which advocated overthrow and cleanse of authorianism. However, enlarged the middle classes by the modernization of fatherland, assertion of civilians requiring politicak freedom and economic equilibrium since 1980's strongly come to the fore, and aggresive challenge of the left-wing helped, taking advantage of these circumstances Society was extremely in disorder, and proclmation of Democratization came out on June. 29, 1987 while the political situation still face on uncertainty. 6.29 Proclmation is a kind of reformation measures which showed that the party in political power accepted a request of democratization of people and accomplished political develoment directed to Democratism by forming national mutual consent.

III

Republic of korea, above all, has difficulty in realizing Liberal Democracy hard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because of the state of tension with North Korea. Besides party in political power and the nation were insufficiency in a liberal mode of living in the vortex of power, and deepening the gulf between rich and poor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 portion of the nation became estranged. It appeared on the stage of social problem. Speak a word, the point of realization of our Liberal Democracy was in fact that all sorts of the given state of political reality was decifiency in the given condition being able to keep developing Liberal Democracy. However, Repubilc of Korea has been converting premodern social structure and social culture into modern cultural structure of present, and the nation have strong will and belief in realizing Liberal Democracy. That Republic of Korea accepted Western liberal Democracy is since half century ago.

Liberal DEmocracy is not an exquisite ideology which has content of doctrinism. It does nothing but have the minimum content of conference of politic, economy, and social culture. Nowadays, it's the overriding view of what dismantlement and collapse of the system of socialism in Eastern Europe prove the superiority of Liberal Democracy. Now, it's a key point for liberal Democracy of Republic of Korea to solve and practice rupture and discord of society with not authorianism of surpression and exclusion but

rational method of conversation and forbearance.

A sovereign remedy of Liberal Democracy depends on his or her ability how to use Liberal Democracy. We should inscribe it can be differently presented bigger or smaller.